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문학석사학위논문

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에 대한 연구

2022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전공
陳 若 儀

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에 대한 연구

지도교수 박 진 호

이 논문을 문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10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국어학 전공
진 약 의

진약의의 문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2년 1월

위 원 장 이 현 희 ㊞

부위원장 장 윤 희 ㊞

위 원 박 진 호 ㊞

<한국어초록>

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에 대한 연구

진약의

본 연구는 한국어에서 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밝히는 것이다. 기존의 연구에 비하여 본 연구는 주로 통시적인 관점을 취하며 말뭉치 자료를 바탕으로 현대한국어에서 조사 '에', '에게/한테', '로'와 결합할 때에 보조사 '다가'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에', '에게/한테', '로'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의 순서로 일일이 다루어 보았다. 조사와 결합된 형태인 '에다가', '에게/한테다가'와 '로다가' 전체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먼저 살펴보고 이중에서 '다가'의 의미기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조사 '에'가 부사격조사로 기능하는 경우와 접속조사로 기능하는 경우로 나눠서 따로 컴토하였다. 부사격조사 '에다가' 중의 '다가'는 구문에서 사용된 서술어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서 '접근'과 '추가' 두 가지 의미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알아냈다. 한편 접속조사 '에'와 결합되는 '다가'는 '추가'의 의미기능만 가지고 있다. 이 밖에 본 장에서는 조사 '에다가'의 확장된 용법과 조사 '에'와 '에다가'의 비교도 다루었다.

제3장에서는 조사 '에게/한테'와 결합하는 '다가'의 의미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에게/한테'와 '에게/한테다가' 용법 비교와 말뭉치 용례를 통하여 이때의 '다가'는 '접근'의 의미를 지니고 있으나 '강조'의 기능을 주로 수행한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강조'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다가'는 그의 작용역에 따라서 '대상'을 강조할 수도 있고 '접근'을 강조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제4장에서는 위에 제3장과 같은 구조를 가지고 '로다가' 중의 '다가'를 논의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 '로'의 열 가지 용법 중에 아홉 가지에 '다가'를 붙일 수 있는 것으로 '로다가' 중의 '다가'는 원래의 의미가 거의 다 탈색되

고 '강조'라는 기능만 수행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에게/한테다가' 중의 '다가'와 비슷하게, '로다가' 중의 '다가'도 강조 대상이 '로', '선행명사+로'와 화자의 감정양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주요어 : 조사, 보조사, 보조사 '다가', 의미적 기능, '에다가', '에게/한테다가', '로다가'

학 번 : 2019-20398

목 차

1. 서론 1
1.1. 연구 목적 및 대상 1
1.2. 선행연구 3
1.3. 논의의 구성 4

2. 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 6
2.1.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 6
2.1.1.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제약 9
2.1.1.1. '에다가' 선행명사의 제약 9
2.1.1.2. '에다가' 후행 서술어의 제약 11
2.1.2.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12
2.1.3. 부사격조사 '에다가' 용법의 확장 31
2.1.3.1. 시점을 향한 이동 31
2.1.3.2. 상태 유지에 관한 표현 32
2.1.4. 부사격조사 '에'와 '에다가' 32
2.2. 접속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 36
2.2.1.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기능 36
2.2.1.1.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하는 '에다가' 39
2.2.1.2. 명사구와 절을 연결하는 '에다가' 41
2.2.2. 접속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의 의미적 기능 43
2.2.3. 접속조사 '에다가' 용법의 확장 48
2.2.3.1. 여기/거기(에)다가 48
2.2.3.2. 연결어미 상당 구성 '-은/는/던 데다가' 51
2.2.3.3. 접속부사 '게다가' 52
2.2.4. 접속조사 '에'와 '에다가' 53

3. 조사 '에게/한테'와 결합하는 '다가' 56

3.1. 조사 '에게/한테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 56
3.2. 조사 '에게/한테다가'의 '다가'의 의미적 기능 ····· 61
3.2.1. 보조사 '다가'의 '강조' 의미 ····· 62
3.2.2. 보조사 '다가'의 강조 양상 ····· 65
3.3. 조사 '에게/한테다가' 용법의 확장 ····· 69

4. 조사 '로'와 결합하는 '다가' ····· 71
4.1. 조사 '로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 71
4.2. 조사 '로다가'의 '다가'의 의미적 기능 ····· 78
4.2.1. 보조사 '다가'의 '강조' 의미 ····· 78
4.2.2. 보조사 '다가'의 강조 양상 ····· 80
4.3. 조사 '로다가' 용법의 확장 ····· 84
4.3.1. 조사가 아닌 '로' 뒤에 쓰인 '다가' ····· 84
4.3.2.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로다가' ····· 86

5. 결론 ····· 89

참고문헌 ····· 93
中文纲要 ····· 97

1. 서론

1.1. 연구 목적 및 대상

본 연구는 한국어 조사 '에', '에게/한테', '로'와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조사 '에다가', '에게/한테다가'와 '로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살피고, 이를 통하여 보조사 '다가'의 의미기능을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한국어의 조사 체계에서 격을 표시하지 않고 자기만의 고유한 의미를 더해주는 기능을 가지는 조사를 보조사라고 부른다(구본관 외 2015). 대부분 보조사의 사용은 상당히 자유롭다. 체언적인 특성을 가지는 명사나 구, 절은 물론, 일부 부사어, 활용 어미 등과의 결합도 가능하다. 또는 보조사가 어디에 붙든지 그 고정된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전형적인 예는 대조나 주제를 나타내는 '은/는', 배타나 한정을 의미하는 '뿐', '만'과 선택을 표시하는 '나', '이라도' 등이 있다.

그러나 한국어 보조사 '다가'의 통사·의미적 특성은 위에서 제시된 것들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난다. 결합대상에 있어서 다른 보조사가 격조사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는 반면에 보조사 '다가'는 결합할 수 있는 대상의 수가 아주 제한적이다. 먼저 보조사 '다가'는 명사와 직접 결합하기 어렵다. 물론 '모래다가', '야외다가'처럼 명사 뒤에 바로 나타나는 예가 있기는 하나 이들은 중간에 '에'가 생략된 결과로 보아야 한다. '다가'는 조사와의 결합이 상대적으로 자주 보이지만 그 결합대상은 고작 '에', '에게', '한테', '로' 4개뿐이다. 본 연구는 '다가'의 조사와의 결합에만 집중하여 연구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 보조사의 의미적 기능은 크게 변하지 않는 데 반해 보조사 '다가'는 '에', '에게', '한테', '로' 이 4개 조사와 결합할 때에 의미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로'의 용법에 '다가'를 붙일 수 있는데 조사 '에'와 '에게/한테'는 일부의 용법만 '다가'와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사용양상의 차이는 보조사 '다가'의 개별적 의미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결합대상이든 의미기능이든 보조사 '다가'는 한국

어 보조사 체계 중에서 비교적 특별한 것이라고 봐도 될 것 같다.

따라서 보조사 '다가'는 '에', '에게', '한테', '로'와 결합할 때에 각각 어떠한 통사·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먼저 논의한다. 그 후에 보조사 '다가'의 기본적 의미가 무엇인지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의 의미기능 간 관련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한다. 본 연구는 주로 공시적 관점을 취하여 현대한국어에서 사용되는 용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아서 보조사 '다가'가 현대한국어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밝히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국어 기초 어휘 선정 및 어휘 등급화 연구"(국립국어원, 연구책임자: 이삼형, 2017, 2018, 2020)를 위해 구축한 약 45억 어절 말뭉치와 "모두의 말뭉치"에서 신문, 문어, 구어, 메신저 약 17억 어절을 추가하여 구성한 약 62억 어절 규모의 말뭉치를 활용하였다. 그 외에는 《표준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 등재된 용례도 있다.

보조사 '다가'의 문법적 지위에 대하여 논의하기 전에 먼저 '다가'가 하나의 형태소로 기능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앞서야 한다. 이에 대하여 고영근(1975)에서 '다가'를 하나의 형태소로 규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다가' 중의 '가'는 많은 환경에서 생략될 수 있을뿐더러 아무런 의미도 없으므로 '다가' 전체를 하나의 형태소로 보기로 하였다. 그 이후 '다가'에 관련된 논의들에서도 이를 쪼개서 분석하지 않고 '다가'라는 하나의 문법 형태소로 보는 견해가 대부분이다.

또는 보조사 '다가'와 완전히 같은 형태를 가진 연결어미 '다가'도 있는데 통시적으로 보면 이들은 현대한국어에서 다른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기원적으로는 같은 것이고 같은 의미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워서 대부분은 추측일 뿐이다. 박진호(1997)에서는 조사 '다가'와 동사 어간에 직접 붙는 어미 '다가'는 다른 기원에서 유래된다고 제시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동사 어간과 직접 결합한 '-다가'가 음독 구결 자료에서 '-ᄃᆞ샤가/드샤가'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회상의 선어말어미 '더-'가 포함되어 있는 통사적인 구성이 연결어미로 굳어진 것이다. 이는 동사 '다그-'에서 유래된 보조사 '다가'와 다른 것이므로 본 연구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1.2. 선행연구

보조사 '다가'나 '다가'와 조사가 결합한 조사들에 대한 기존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으나 그 중에서 15세기 문헌에서 '다가'가 격조사와 함께 나타나는 용례부터 현대한국어의 사용양상까지 살펴본 통시적 연구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에서 문법화 이론을 가지고 '다가'의 변천 과정을 다룬 연구는 이태영(1988), 한용운(2003), 전후민(2014), 백낙천(1996), 박용찬(2014ㄱ), 예선희(2015), 최윤(2016) 등이 있다. '다가'에 대한 통시적 연구는 주로 두 가지 문제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하나는 보조사 '다가'의 어원에 대한 문제이다. 대부분 논의에서 이는 동사 '다그-'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하며 '다가'와 중국어 '把, 將'을 대응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대표적인 논의는 김문웅(1982), 이태영(1988), 이남순(1996), 김승곤(2004), 장회견(2015) 등이다. 김문웅(1982)에서는 보조사 '다가'는 관형격조사 '의'와 공기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에서 유래된 것이라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장회견(2015)에서는 보조사 '다가'의 출현은 중국어 문헌을 번역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하였다. 통시적 연구에서 많이 다루었던 두 번째 문제는 바로 보조사 '다가'의 변천 과정이다. 김문웅(1982), 백낙천(1996), 박용찬(2014ㄱ)와 전후민(2014)는 '다가'의 변화 과정을 문법화의 관점을 취하여 15세기의 용법부터 현대한국어의 용법까지 살펴보았다.

통시적 연구에 비하여 현대한국어에서 쓰이는 보조사 '다가'나 격조사 '에다가', '로다가', '한테/에게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에 집중하여 논의한 것은 비교적 적은 편이고 임채훈(2002), 유경화(2013), 정현이·권성미(2018), 정현이(2018) 등 몇 편밖에 없었다. 공시적 연구 중 대부분은 조사 '에다가'와 이 중의 '다가'의 특성에만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이외에 '로다가', '에게/한테다가'는 주로 관련된 부분으로 조금 언급되고, 자세한 논의를 찾기 어렵다. 또한 이 중에서 보조사 '다가'의 결합대상에 따라 수행하는 의미기능을 비교하고 그들 간의 연관성을 고찰하는 기존연구는 더욱 드물었다.

보조사 '다가'는 의미격조사 '에', '로', '에게'와 '한테'에만 후행할 수 있으나, 이들의 결합양상은 조금 다르게 보인다. 격조사 '에'는 무조건 '다가'와 결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부의 용법에서만 결합이 가능하고, 조사 '에게/한테'는 '에'보다 '다가'를 붙일 수 있는 경우가 조금 많이 있으나 항상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 비하여 조사 '로'의 대부분 용법에는 보조사 '다가'를 붙일 수 있는데, 용법별의 사용 빈도의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다른 조사와 결합하는 각각의 '다가'는 모두 같은 속성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따로 분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다가'와 결합된 조사 '에다가', '로다가', '한테다가'와 '에게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살펴보고 보조사 '다가'가 다른 조사와 결합할 때에 어떤 의미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3. 논의의 구성

본 연구 논의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조사 '에'와 '다가'가 결합한 '에다가'와 그중의 '다가'를 주로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에다가'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접속조사 '에다가'로 나눠서 따로 논의한다. 먼저 부사격조사로 기능하는 '에다가'의 몇 가지 제약을 제시하고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서 '에다가'와 '다가'의 의미기능을 일일이 살펴본다. 이어서 부사격조사 '에다가'가 확장된 용법과 부사격조사 '에'를 비교한다. 그리고 접속조사로서의 '에다가'로 연결된 각 접속항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서 '에다가'의 두 가지 용법을 살피고 나서, '에다가'와 '다가'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접속조사 '에다가'의 확장된 용법과 접속조사 '에'의 비교가 이어진다.

제3장에서는 여격조사 '에게/한테'와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조사 '에게/한테다가'가 주요 논의 대상이다. 먼저 부사격조사 '에게/한테다가'와 '에게/한테'의 사용양상을 비교하고 이들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기술한다. 그 후에 '에게/한테다가' 중의 보조사 '다가'의 의미적 기능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그 의미적

기능이 무엇인지, 작용역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말뭉치에서 발견된 '에게/한테다가'의 비전형적인 용법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제4장에서는 조사 '로'와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조사 '로다가'를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는다. 본 장의 논의 구성은 위와 유사하게 먼저 조사 '로다가'와 조사 '로'의 사용양상을 비교하고 '로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기술한다. 그 후에 '로다가' 중 보조사 '다가'의 의미적 기능을 살펴본다. 마지막 조사 '로다가'의 확장된 용법을 두 가지를 제시한다.

제5장은 본 연구의 논의를 마무리한다. 앞에서 논의된 것을 정리하고 미진한 부분과 향후의 연구 계획을 제시한다.

2. 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

2.1.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

조사 '에'의 통사적 기능을 따지면 크게 세 가지 용법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는 장소, 대상, 기준과 원인 등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의 용법이고, 또 하나는 접속조사로서 몇 개의 문장 성분을 연결시키는 기능이며, 마지막은 '에 불과하다', '에 의하여', '에 관하여' 등 관용표현에 쓰이는 것이다. 이 중에서 접속조사 '에'는 '다가'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부사격조사 '에'는 일부 용법만 '다가'와 결합이 가능하나, 관용표현 중에 나타나는 '에'는 '에다가'로 대체되지 못한다. 본 장에서는 사용양상이 조금 더 복잡한 부사격조사 '에다가'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고, 접속조사 '에다가'는 유추로 인하여 '다가'가 확장된 용법으로 간단히 볼 것이다. 먼저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경우를 보도록 한다.

부사격조사 '에'와 보조사 '다가'로 구성된 조사 결합체는 문장에서 보통 '에다가'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두 가지 경우에는 앞에 '에'가 생략되고 선행명사+'다가'의 형태로 표시될 때도 있다.

첫 번째 경우로, 모음 '에'나 '애'로 끝나는 선행명사와 '에다가'가 결합할 때에 '에'가 생략될 수 있다.

(1) ㄱ. 이름 <u>아래다가</u> 동그라미 쳐서 제출해.
ㄴ. 고관절이 나쁜 사람은 무릎 <u>아래다가</u> 배게를 넣고 쉬면 좋다.
ㄷ. 이거 <u>모래다가</u> 놓을까?
ㄹ. 이거 <u>야외다가</u> 놓을까?

15-16세기 자료에서도 처격조사를 생략하고 명사와 '다가'가 직접 결합하는 현상을 찾을 수 있다. 이현희(1995)에서는 이를 하향적 이중모음 'j'로 끝나는 시간 장소 명사류 뒤에 처격조사 '예'의 통합이 저지되어서 생략되는 문법 현

상으로 설명하였다.

두 번째로 '에'가 생략 가능한 경우는, 부사격조사 '에다가'가 처소 대명사 '여기, 저기, 거기, 어디'와 결합하면서 흔히 '여기다가, 저기다가, 거기다가, 어디다가'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의미기능을 가지는 '이곳, 저곳, 그곳'으로 대체하면 '에'의 생략이 불가능해진다.

(2) ㄱ. 여기다가/*이곳다가 연극 전용 극장을 지을 생각이야.
ㄴ. 아니, 거기다가/*그곳다가 담뱃재를 털면 어떻게 하나?
ㄷ. 저기다가/*저곳다가 믿고 보낼 만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류' 처소 대명사의 형성과정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박진호·황선엽·이승희(2001)에 따라서 기원적으로 보면, 처소 대명사 '여기, 저기, 거기'는 명사와 처격조사 '-의'가 통합되고 처격조사의 일부 모음이 탈락하여 형성된 새로운 명사 형태이다. 이러한 처소 대명사 내부에 처격조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뒤에 오는 처격조사 '에'는 자연스럽게 생략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생략이 중세한국어 문헌에서도 흔히 보인다. 상술한 경우는 음운론적 제약이나 통시적 어휘변화의 원인으로 격조사 '에'가 표면적으로 생략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형태가 '에다가'임은 틀림없다.

또한 '에다가' 중의 '가'가 없어지고 '에다'로 절단될 경우도 종종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김수진(1987)은 방언에서 원인을 찾았다. 경상도 방언에서 '에다가'를 '에다아'로 발음하는 일이 있는데, 음운론적으로 모음과 모음 사이의 'ㄱ'이 탈락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에다가' 뿐만 아니라 '로다가', '한테다가' 등의 용례에서도 '가'가 절단된 것이 많이 발견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 논의할 대상은 '에다가'이지만, 이와 형태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기는 해도 의미기능은 같은 '에다', '명사+다가'도 포함하여 같이 논의할 것이다.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격조사 '에'에다가 보조사 '다가'를 붙인 것이어서 그 의미적 기능도 원래 '에'의 기능을 기반으로 하여 '다가'의 의미기능을 더해 준

것이다. 즉 '에다가'의 특성이든 보조사 '다가'의 특성이든 격조사 '에'와 비교해야 알아낼 수 있다. 이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한국어대사전》과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제시된 부사격조사 '에'의 용례를 가지고 보조사 '다가'를 첨가해 보고, 문장의 성립 여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아래와 같이, 부사격조사 '에'의 예문 중의 '에다가'로 바꿔도 성립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뿐만 아니라 '에다가'로 대체 이후에도 의미가 크게 변하지 않는 것 같다.

(3) ㄱ. 취중 버릇이 나쁜 사람을 가리켜 개에/에다가 비유한다.
ㄴ. 마지막 순찰을 돌고 있던 야경꾼이 대문에/에다가 붙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ㄷ. 이 통에/에다가 기름 좀 가득 넣어 주세요.
ㄹ. 어머니는 아침마다 나무와 꽃에/에다가 물을 주었다.
ㅁ. 아기 기저귀는 햇볕에/에다가 말려야 살균도 되고 좋단다.
ㅂ. 언덕 위에/에다가 집을 짓다.
ㅅ. 국에/에다가 밥을 말아 먹다.

위에서 제시된 예문만 보면 보조사 '다가'는 별 의미적 기능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다가'를 붙인 후에 의미적 차이가 생긴 문장도 일부 존재한다. 아래에 있는 문장들은 '에다가'로 바꾸면 비문이 되지 않으나 기술된 사건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4) ㄱ. 예전에는 등잔불에 글을 읽었다.
ㄴ. 예전에는 등잔불에다가 글을 읽었다.
ㄷ. 노마는 연필을 깎다가 칼에 손가락을 베었다.
ㄹ. 노마는 연필을 깎다가 칼에다가 손가락을 베었다.

(4ㄱ)에서는 화자가 등잔불의 빛에 의해서 글을 읽는다는 것만을 기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비하여 (4ㄴ)에서는 화자가 주동적으로 등잔불에 다가 가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4ㄷ)에서 '칼에 베었다'라는 말은 손가락을 다치게 한 도구나 원인을 제시하는 것뿐이고 구체적인 동작 과정을 묘사하지 않는다. 그러나 (4ㄹ)에서 '칼에다가 손가락을 베었다'라는 표현을 통하여 손가락이 칼에 다가가서 결국에 상처를 입은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화자의 초점을 '칼에다가'에 둘 수도 있고 동작성을 강조할 수도 있다. 이러한 차이는 바로 보조사 '다가'로 인한 것이다. 따라서 '다가'는 자기만의 의미기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어서 사전에서 제시된 용례 중에서 '에다가'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를 보겠다. 그리고 이러한 수용성이 떨어지는 문장을 가지고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몇 가지 제약을 먼저 간단히 살펴볼 것이다.

2.1.1.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제약

2.1.1.1. '에다가' 선행명사의 제약

유경화(2013)에서 (5)에 제시한 것처럼, '에다가'의 선행명사는 반드시 무정물이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에다가'에서 '다가'를 삭제해도 문장이 성립하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을 향하여 물건이나 감정을 전할 때에나 피동문의 행위주를 나타낼 때에 '에' 대신해 '에게'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무정물이라는 제약은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선행명사 제약으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다가'로 인해서 '에다가'가 가지게 된 제약이 아니라, 부사격조사 '에'와 '에게'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다.

(5) ㄱ. 철수는 영희에게/*에/*에다가 선물을 줬다. (유경화 2013)
ㄴ. 그 사람은 경찰에게/*에/*에다가 쫓기다 자살하려고 옥상에 올라갔었다.

신서인(2017)에서는 부사격조사 '에'가 포함된 논항을 문장에서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에 따라 나누고, 각각에게 착점(Goal), 대상(Theme), 기준치

(Criterion), 경험주(Experiencer), 처소(Location)와 같은 5가지 의미역을 부여하였다. 아래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논항이 착점 이외에 다른 의미역을 할당받았을 때에는 조사 '에'에서 '에다가'로 바꾸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6) ㄱ.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에다가 태어났다. (LOC)
ㄴ. 우리는 부산에/*에다가 살아요. (LOC)
ㄷ. 신속의 임금이 우리 속에/*에다가 갇혔으니 참 그 꼴 좋다. (LOC)
ㄹ. 화장실은 복도 끝에/*에다가 있었다. (LOC)
ㅁ. 자가임신 진단시약에/*에다가 문제기 많다. (LOC)
ㅂ. 그 노트 안의 필적은 남경사의 눈에/*에다가 낯설었다. (EXP)
ㅅ. 피고용인은 67%에 불과하며 자영업이 상대적으로 많아 17.78%에/*에다가 이른다. (CRE)[1)]
ㅇ. 이에 따라 은행감독원이 관련혐의가 있는 지점장들에 대해 조사에/*에다가 나섰다. (THM)
ㅈ. 은행감독원 등 감독기관이 이에 대한 점검업무에/*에다가 소홀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THM)

부사격조사 '에'가 포함된 성분이 문장에서 착점역으로 할당될 때, 그 중의 일부는 (7ㄱ-ㄷ)과 같이, '에다가'로 대체할 수 있고, 또 다른 일부는 아래 (7ㄹ-ㅂ)과 같이 여전히 '에다가'를 사용하지 못한다.

(7) ㄱ. 莊子는 물 위에/에다가 낚시를 휙 던졌다. (GOL)
ㄴ. 조동필이 다시 말을 멈추고 들고 있던 술병을 입에/에다가 가져갔다. (GOL)
ㄷ. 그런데도 이들은 불량배의 보복위협이 두려워 배밭고 숨진 친구를 미끄럼틀에서 실족해 죽었다고 경찰에/에다가 거짓 신고했다. (GOL)

1) 신서인(2017)에서 제시된 기준치역(CRE)을 본 연구의 주장대로는 착점(GOL)으로 정하고 따라서 모든 기준치역의 경우에는 부사격조사 '에'를 '에다가'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후술하겠지만 '사랑을 종교에/에다가 비유한다'라는 문장처럼 '에다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많다.

ㄹ. 닭과 달걀의 모든 것이 한 자리에/*에다가 모였다. (GOL)
ㅁ. 긴 원피스도 몸에/*에다가 꼭 붙어 몸매를 강조하는 것이 인기다. (GOL)
ㅂ. 강서브의 선수가 우위를 차지하는 것은 테니스의 존폐에/*에다가 관계된다. (GOL)

위에서 본 논항의 경우 외에, 부사격조사 '에'가 포함된 성분이 문장에서 부가어로 기능하는 경우도 자주 보인다. 아래 (8)과 같이, 선행명사가 가지는 의미가 시간·빈도·가격·원인이면 문장의 조사 '에'를 '에다가'로 바꿀 수 없다.

(8) ㄱ. 자명종 시계가 다섯 시에/*에다가 울게 되어 있다.
ㄴ. 나는 하루에/*에다가 두 번씩 세수를 한다.
ㄷ. 순이 엄마는 하루 삼만 원에/*에다가 파출부 일을 한다.
ㄹ. 이삿짐이 너무 많아서 한 번에/*에다가 나르지 못했다.
ㅁ. 두 마리의 굶주린 늑대 사이에서 새끼 양은 두려움에/*에다가 떨 것이다.
ㅂ. 그는 요란한 소리에/*에다가 잠을 깼다.

따라서 의미역을 기준으로 삼아 조사 '에다가'의 선행명사 제약을 요약하자면, 문장에서 부가어로 기능할 때는 '에다가'가 쓰일 수 없고, 논항으로서 착점역 이외에 다른 의미역에 해당할 때도 '에다가'를 사용할 수 없으며, 착점역으로 부여되는 경우에도 일부에만 '에다가'가 사용된다.

의미역이라는 개념은 실제로는 논항과 서술어의 관계에서 유래된 것이다. 따라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사용양상을 더욱 잘 파악하려면 선행명사보다는 후행 서술어의 특성을 밝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음으로 조사 '에다가'의 후행 서술어 제약을 간단히 보도록 한다.

2.1.1.2. '에다가' 후행 서술어의 제약

선행명사의 제약보다는 '에다가' 구문 서술어의 제약은 더욱 분명하고 다양

하다. 아래 문장들의 서술어는 형용사인 경우인데 이들 문장은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에다가' 후행 서술어의 첫 번째 제약은 형용사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9) ㄱ. *지금 우리 아이는 집에다가 없어요.
ㄴ. *지수의 상태는 듣기에다가 매우 심각하다.
ㄷ. *좋은 약은 입에다가 쓰고 좋은 충고는 귀에 거슬린다.
ㄹ. *그 학생의 답안은 완벽에다가 가까웠다.
ㅁ. *그는 자기의 일에다가 열의가 대단하다.
ㅂ. *비에다가 젖은 옷을 그대로 입고 있으면 감기에 걸리기 쉽다.

서술어가 동사일 경우에도 비문이 되는 문장을 흔히 찾을 수 있다. 아래 (10ㄱ-ㅅ)과 같이, '있다', '머무르다', '살다'와 '가다', '도착하다' 같은 자동사도 비문이 된다. 그러나 자동사 서술어가 '에다가'와 전혀 함께 쓰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10ㅇ)처럼 일부 문장에서 '붙다' 같은 자동사도 '에다가'를 취할 수 있다.

(10) ㄱ. *그가 살고 있던 지방은 강 가까이에다가 있었다.
ㄴ. *그는 도착하자마자 호텔에다가 머물렀다.
ㄷ. *나는 시골에다가 산다.
ㄹ. *고래는 포유 동물에다가 속한다.
ㅁ. *학교에다가 가다.
ㅂ. *목적지인 뉴욕에다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
ㅅ. *침대에다가 꽃이 놓였다.
ㅇ.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도 붙는다.

2.1.2. 부사격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에다가' 구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술어들은 의미적 기능에 따라서 3가지,

곧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창조 동사,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분류할 수 있다.

<1>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채희락·임은숙(2013)에서는 이동과 관련된 동사를 이동의 의미를 함의하는 것과 이동의 의미를 함축하는 것으로 나눠서 논의하였다. 이에 따르면 '가다', '오다'처럼 전형적인 이동 동사는 이동의 의미를 무조건 함의하고 있다. 반면에 '붙이다'와 같은 동사는 '누군가 무엇을 붙이다'의 문형으로 나타날 때에 행위주의 동작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동의 의미가 없어도 된다. 그러나 '무엇을 어디에 붙이다'라는 문형에서는 대상을 붙이는 과정, 즉 무언가를 착점에 붙이게 되는 과정을 더 강조하기에 이동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이동의 의미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동사는 이동을 함축하는 동사라고 본다. '에다가'와 공기 가능한 동사 중에 전형적인 이동 동사뿐만 아니라 이동의 뜻을 함축하는 동사도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을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라고 부를 수 있다.

홍재성(1994)에 따르면 이동 동사는 주체가 스스로 이동하는 주체 이동과 외부의 힘이 의하여 움직이게 되는 객체 이동으로 나뉠 수 있다. 이와 비슷하게 본고의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도 이동을 일으키는 힘이 이동 주체에 있느냐, 아니면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다. 전형적인 이동 동사, 즉 이동을 함의하는 동사 중 '가다', '오다', '다니다' 등의 주체 이동 동사는 '에다가'와 공기할 수 없고, 이동을 함축하는 것 중 '앉다', '눕다' 등의 주체 이동 동사도 '에다가'와 함께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도장을) 찍다', '놓다', '쓰다', '붙이다' 등의 객체 이동 동사들은 '에다가' 구문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중에 '객체 이동 동사'만이 '에다가' 구문에 허용된다고 할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동사는 어떤 대상이 착점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자세히 기술하는 동사들이다. 예를 들어서 아래 문장에서 쓰이는 '놓다', '넣다', '끼얹다

', '붓다', '꽂다', '던지다'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놓다', '넣다', '데리다'와 '모시다'는 대상이 도착하는 위치를 명확히 제시하고, '붓다'와 '끼얹다', '버리다', '던지다'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의 이동 방향이나 이동 경로도 함의하고 있다. '말다'라는 동사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밥이나 국수 따위를 물이나 국물에 넣어서 풀다.'라는 뜻풀이에 따르면 동사 내부에 '넣다'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 여기서 제시된 동사들은 이동의 의미가 강해서, 동사만으로도 대상 위치의 이동 의미를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다.

(11) ㄱ. 책은 여기다가 놓고 갈게.
ㄴ. 국물에다가 유부랑 오뎅을 넣고 끓이면 오뎅탕으로 변신
ㄷ. 소주를 주문하면 이쁜 병에다가 넣어 준다.
ㄹ. 자글자글 끓는 양념장을 떠서 위에다가 대여섯번 끼얹고 불을 줄였다.
ㅁ. 나는 식은 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부어서 비벼 주었다.
ㅂ. 물을 가득 채운 병에다가 빨대를 꽂아라.
ㅅ. 도둑의 아들은 곤경에 빠져 헤어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서 저수지를 따라 돌면서 달아나다가 물에다가 바위를 던졌다.
ㅇ. 누가 날 여기에다가 버렸어?
ㅈ. 그런 분들은 집에서 밥에다가 물 말아 드시는 게 어떨지.
ㅊ. 다른 기관에다가 보낸 그 편지를 저희가 봤는데 예일대학교의 이 담당자가 보낸 편지입니다.
ㅋ. 조용하고 나즈막한 동네에 엄청난 산업도로에다가 아파트숲을 끌어들이려 하는 움직임.
ㅌ.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잠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다.
ㅍ. 뭐시냐, 웬만하면 유골이라도 절에다가 모시게 그러냐?
ㅎ. 재밌는 이야기도 하고 같이 빵도 나눠 먹고 집에다가 데려다 주고.

위에 제시된 것들과 달리, 일부 동사는 그 자체로는 이동의 뜻이 없으나 해당 동작이나 행위를 할 때에 결과적으로 어떤 대상의 위치 이동을 일으키게 될 수 있다.

(12) ㄱ. 집 옆에다가 차를 세워 놓고 있다가 바로 나갔다.
ㄴ. 그 중 첫 번째가 발해 사람들은 얼굴에다가 돼지기름을 바르면서 지냈다는 것이다.
ㄷ. 복잡한 거리서 널 한눈에 찾고 살며시 다가가 니 볼에다가 키스해.
ㄹ. 어렸을 때 먹었던 방식으로 고추장에다가 찍어 먹기 느끼한 것을 덜어주는 역할을 한다.
ㅁ. 한국에다가 수출을 한다든지 세계에 수출해 버리면 우리 지금 우라늄 가지고 하는 이 원전은 한 수 뒤에 처져 버립니다.
ㅂ. 손을 코에다가 대어보니까 따뜻한 김이 살짝 힘없이 끼치었다.
ㅅ. 그러나 나 어릴적에는 농사를 짓고 창고에다가 잘 보관을 해야 겨울 내내 간식거리고 먹었던 것이 고구마 감자였습니다.
ㅇ. 제니퍼 로렌스의 미스틱은 당연히 CG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몸에다가 분장을 한 거였다.

예를 들어서 (12ㄱ)에서 집 옆 적당한 위치에 세우기 위한 차의 이동, (12ㄴ)에서 얼굴에 바르기 위한 돼지기름의 이동, (12ㄷ)에서 키스하기 위한 얼굴의 이동 등은 사건 내부 함축되어 있지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아래 문장 중에서 '창고에다가 보관한다'라는 문장에 중의성이 다소 존재한다. '보관하다'라는 동사는 원래 상태성이 강한 동사이므로 이동과 같은 동태적인 의미를 가질 수 없다. 하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보관하다'는 농작물을 창고에 가져다 두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문장이 성립하게 되었다. 동사 '키우다'를 가지는 문장은 위의 '보관하다' 구문과 비슷하게 '에다가'에 후행할 때에 동식물을 돌보아 기르는 과정을 약화시키고, 키우기 시작할 때에 대상을 집이나 논에 처음 놓는 것을 더 중점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3) ㄱ. 개인적으로 집에 수조 가져다 놓고 키우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애들은 집에다가 몇 마리 키우고 두고두고 보고 싶을 정도였다.
ㄴ. 논에다가 양송이버섯을 키우는 내 친구 사채를 만났다.
ㄷ. 작은 어항에다가 키워볼 욕심으로 한자 이하 작은 어항에 구피를 키

워보고 싶은데 효율적인 여과기 추천 좀 부탁 드려요.

또한, 일부 문장에서는 위와 같은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나 대상의 이동을 하게 되는 동사가 없으나, 실제로는 그 사건이 이동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기도 한다. '굽다', '하다', '끓이다'나 '비비다'와 같은 동사만을 보면 이들은 특정된 장소 안에서 하는 행위를 기술하는 것이고, 위치의 이동과 관련이 없다. 그러나 문장 전체의 의미를 살펴보면 이동을 의미하는 동사가 생략되었을 뿐이다. 다시 말하자면, 아래 문장은 '놓다'나 '넣다'의 뜻이 있지만, 그런 의미는 쉽게 예측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다.

(14) ㄱ. 갈비살은 늘 불판에다가만 구워 먹어봤는데.
ㄴ. 전기밥솥에다가 밥을 해 먹는데.
ㄷ. 연탄 난로에다가 라면을 끓였다.
ㄹ. 기저귀는 햇볕에다가 말려야 살균도 되고 좋단다.
ㅁ. 대접에다가 밥 비벼 먹어버리고 싶더라는 오이가 있었구나.
ㅂ. 물에다가 뭐 타서 먹었어요.
ㅅ. 내 귀에다가 들릴듯 말듯하게 속삭여줄 때.

(14ㄱ)에서처럼 굳이 쓸 필요가 없는 '놓고'를 제거해도 문장의 의미에 아무 영향도 없기에 이처럼 생략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일부 사전에서는 '에다가'의 선행명사 '불판'이나 '연탄 난로' 등을 '도구'라는 의미로 등재하고 있다. 필자의 생각에는 이처럼 선행명사의 개별 어휘적 의미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주관적인 경향이 있다. 아래 문장도 위와 같이 착점을 향하여 이동하는 의미로 보면 된다.

위에서 살펴본 예문은 구체적인 대상이 어떤 장소를 향하여 이동하는 사건만 포함되어 있다. 그 외에 어떤 동작이나 행위의 이동, 즉 추상적인 대상의 이동을 가지는 동사도 '에다가' 구문에서 쓰일 수 있다. 아래서 제시된 대상은 완전 추상적인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는 것이다. 전화가

집에서 울리거나, 문자가 컴퓨터에 들어가 있거나 등, 그 행위를 한 후에 보통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

(15) ㄱ. 송석구는 그냥 호텔에 주저앉아 집에다가 전화를 걸었다.
ㄴ. 그렇다고 이곳에다가 함부로 매너 없는 댓글을 남겨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ㄷ. 그런데 컴퓨터에다가 그것을 입력을 시켜 놨다가 삭제해서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ㄹ. 처음에는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다가 처벌이 두려워 사과의 글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리고 있다.

이동하게 되는 대상은 주로 말이나 글을 통하여 표현하는 사람의 의지나 뜻이다. 예문에서 보이는 '부탁하다', '묻다', '항의하다'와 '보고하다' 등은 이러한 동사의 대표적인 예이다. 특정 기관이나 부서를 향하여 어떤 의사표현을 이동시키는, 즉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다.

(16) ㄱ. 다방에다가 참한 색시를 부탁하는 양반은 이 장사 시작하고 오늘이 첨인데요.
ㄴ. 그리고 LIG넥스원의 자문 활동 내용을 자료를 요구했더니 그쪽에다가 물어보라는 겁니다.
ㄷ. 그리고 증인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중앙대학에다가 사전이나 사후나 승인 요청을 하신 적 있습니까?
ㄹ. 여러 번 주의를 주고, 시청에다가 항의도 해보았지만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ㅁ. 누락 건수는 후보자께서 학교에다가 승진을 위해서 대외활동,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보고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을 가능성이 있다.
ㅂ. 내가 학교에다가 사실 얘기했어.
ㅅ. 집에다가 늦는다고 해.

(16)에 비하여 아래 (17)의 문장들은 대상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가 드러내는 동작이나 행위가 어떤 의미에서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17)

에서 사용된 서술어인 '기도하다', '무릎을 꿇다'와 '절을 하다' 등은 고정된 지점에서 하는 행위이므로 장소의 이동을 동반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행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행위주의 '소원'이나 '기도' 같은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나 장소를 향하여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동사도 '에다가' 구문에서 적절하게 사용될 수 있다.

(17) ㄱ. (나는/우리는/한국 민족은) 어디에다가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
ㄴ. (나는/우리는/한국 민족은) 어디에다가 무릎을 꿇어야 할지 모르겠다.
ㄷ. 사람이 서낭당을 만들어놓고 그곳에다가 절을 하면서 서낭님이 있다고 하니 우습지 않니?
ㄹ. 처음 면접에 들어갔을 때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것이 눈을 어디에다가 둬야할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이동의 의미를 더욱 추상화시키는 경우는 다음 (18)과 같이, 동사가 원래 구체적인 사물의 이동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는 수사적인 표현으로써 추상적인 목적어와 함께 쓰이고, 추상적인 대상의 이동을 의미하고 있다.

(18) ㄱ. 본전에다가 이자를 붙여서 돌려받아야겠다고 생각할밖에 없겠네.
ㄴ. 낯뜨거운 행동 속에다가 내 자신을 물들여가.
ㄷ. 내가 우리 아들 보내고 진짜 가슴에다가 묻었어요.
ㄹ. 왜 우리는 꽃에다가 뭐 그런 더러운 이름을 붙였어요?
ㅁ. 성산댁은 마치 어머니의 맑은 날에다가 자기의 궂은 날을 섞을까 저어하는 듯한 말투였다.
ㅂ. 그는 속세의 고뇌로 떨고 있는 이 젊은 여자의 영혼 안에다가 체념을 심으려고 한다.
ㅅ. 그러면 눈치를 봐서 더 눈이 많이 가는 제품에다가 힘을 실어주는 단어를 몇 개 더 실어 주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추상적인 이동은 비유적인 표현을 나타내는 경우이다. (19)에 제시하듯이 '비유하다'와 '견주하다' 등의 동사는, NP1은 NP2와 유사

하니까 NP1을 마치 NP2처럼 본다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낸다. 이때 비유되는 대상의 실제 처하는 위치가 비유대상을 향하여 가까워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화자의 마음속에서 두 사물이 유사한 특성을 공유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 특성상의 접근, 즉 추상적인 접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화자의 머릿속에 NP1의 특성이 어떤 기준치처럼 고정되어 있고, NP2는 이러한 기준에 가까워지는 것과 같이, 특성이 아주 유사함을 표현한다.

(19) ㄱ. 사랑하는 대상을 종교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어요.
ㄴ. 그리고 그런 희망을 불꽃에다가 비유한 것 같아요.
ㄷ. 그래서 음악계의 치열한 경쟁을 무기 경쟁에다가 비유를 한 것 같아요.
ㄹ. 당청관계를 수레의 양 옆 바퀴에다가 비유를 해주셨는데 일각에서는 수레 앞뒤바퀴 같다, 앞바퀴가 가는대로 뒷바퀴가 따라가는 것 같다,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ㅁ. 해와 달을 부부에다가 견주는 것은 오랜 관습이다.
ㅂ. 마리화나를 사랑하는 여자에다가 비유를 한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동 의미를 가지는 동사 중에 객체 이동을 하게 되는 경우만 부사격조사 '에다가'가 적용될 수 있다. 객체 이동의 이동 대상은 보통 외부의 힘에 의하여 이동하기 때문에, 서술어는 사동형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입히다', '물들이다'와 '눕히다'처럼 동사 어간에 사동 접미사를 붙이는 것도 있고, '하다'에서 '시키다'로 바뀌는 경우도 있다.

(20) ㄱ. 낯뜨거운 행동 속에다가 내 자신을 물들여가.
ㄴ. 거대한 곰에다가 옷을 입힌 것 같은 남자입니다.
ㄷ. 우리가 알고 있는 볶음밥의 맛밥에다가 계란물을 입혀서 볶아졌으면서도 계란을 위에다가 덮어주기까지 한 센스가엿보인다.
ㄹ. 그리고 물류정책기본법에는 없지만 자회사나 계열회사 등에다가 물류를 담당하게 하는 것을 제2자물류라고 하는데요.

ㅁ. 그것을 세상에다가 실현시키기 위하여 당신에게는 세계를 뒤흔들 로맨스 스토리가 될 사랑이 있어야 하고, 챔피언이 되기 위해서는 올라가야 될 험준한 산이 있어야 하였다.

ㅂ. 부모님들은 나를 외국인학교에다가 전학을 시키려 했다.

ㅅ. 제상은 막사로 들어가 침상 밑에서 미리 훔쳐다 놓은 구사히도가다 인형을 꺼내어 미해의 침상에다가 눕히고 베개를 받친 후, 이불을 인형 머리까지 끌어당겨 싸웠다.

<2> 창조 동사

'에다가' 구문에서 쓰일 수 있는 두 번째 동사 유형은 '만들다', '짓다'과 '내다' 등으로 대표하는 창조 동사(creation verb)이다.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창조하고 세상에 나타나게 만드는 동사를 가리킨다. 이러한 동사들은 '산출 동사'나 '제조 동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 김경학(2004), 김윤신(2004) 등을 따라서 '창조 동사'로 부르기로 한다. '에다가'의 선행명사는 이 대상을 생성하는 장소이자, 앞으로 계속 존재할 장소이다.

(21) ㄱ. 그래서 지금 학교 운동장 한가운데에다가 또 교실을 짓고 있거든요.

ㄴ. 남의 땅에다가 내가 건축물을 지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ㄷ. 그곳에다가 쇼핑몰과 놀이공원, 스포츠 시설을 두루 갖춘 진정한 의미의 자족적인 공간을 만들었다.

ㄹ. 저도 옛날에 빵틀에다가 빵 많이 만들어 먹었다.

ㅁ. 정몽주의 후손이 리의 입구를 막고 옆에다가 새로 길을 터놓았다.

ㅂ. 큰길 쪽에다가 사무소를 내야 하는 것인데, 시일은 오살나게 촉박하고, 나와 있는 점포는 왼통 없어 논께 어떡하겄소?

(21ㄱ) 예문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결과적으로 교실을 만들면서 운동장에 둔다는 것이다. 즉 대상을 만드는 동시에 착점에 향한 이동도 이루어지게 된다.

위에서 제시된 '짓다', '만들다', '내다' 등 전형적인 창조 동사 외에도, 어디에 무슨 표시를 남기는 것도 한 가지의 창조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사 '적다', '체크하다', '표시하다'와 '칠하다'도 창조 동사라고 볼 수 있다.

(22) ㄱ. 메모지에다가 내가 듣고 싶은 노랠 적고.
ㄴ.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 놓는데.
ㄷ. 해변에서 가까우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숙소들을 지도에다가 표시해 보았습니다.
ㄹ. 인조 손톱에다가 옅은 색으로 칠하고, 말린 다음에는 좀 더 진한 색으로 덧칠을 해보라.

(22ㄱ)으로 예를 들자면, 노래 가사를 메모지 위에 창조하는 과정에서 표시를 만드는 도구인 펜은 메모지를 향한 이동이 필요하고, 동시에 적게 된 글씨도 착점인 메모지에 붙게 된다.

창조 동사는 보통 방향성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뿐만 아니라, 동작이 일어나는 특정한 장소를 드러내는 '에서' 구문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 아래 예문을 통하여 같은 동사가 다른 부사격조사에 후행할 때의 의미적 차이가 보인다.

(23) ㄱ. 글쎄, 지순이가유, 학교에서 불을 질렀대유.
ㄴ. 글쎄, 지순이가유, 학교에 불을 질렀대유.
ㄷ. 글쎄, 지순이가유, 학교에다가 불을 질렀대유.

(23ㄱ)에서는 지순이가 불을 지르는 행위가 학교에서 수행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나 그 행위가 학교에 무슨 영향을 미치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그렇기에 '학교에서' 중의 '학교'는 단순히 시건의 발생장소로 제시된다. 이에 비하여 (23ㄴ)과 (23ㄷ)은 서로 유사하게 지순이가 학교를 불을 지르는 대상으로 삼는다는, 즉 의도적으로 학교를 불태운다는 의미가 강하다. 또한, 부사

격조사 '에서'를 사용할 때에 화자가 사건 내부에서 바라본다면, '에'를 사용하면 화자가 사건 외부에서 사건 전체를 기술하는 경향이 있고, '에다가'는 이러한 경향이 더 강하게 느껴진다. 따라서 (23ㄷ)의 '학교에다가'는 불을 지르는 행위의 착점으로 봐도 될 것 같다.

이동 동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창조 동사도 '에다가' 구문에 적용될 수 있다. 위에서 '만들다', '짓다' 등과 같은 동작을 통하여 실체가 있는 대상이 생성되고 착점에 놓였다면, 아래서 '하다'와 같은 동사는 가시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내고 착점에 놓는다기보다는, 추상적인 무엇가를 생산하고 착점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24) ㄱ. 누가 하필이면 우리 집 앞에다가 이런 짓을 했을까.
ㄴ. 이곳에다가 어떤 짓을 하고 있을지 나 역시도 궁금해진다.
ㄷ. g(5x)에다가 무슨 짓을 하면 x가 될지 생각해보세요.

예를 들자면 (24ㄱ)에서 행동주는 '이런 짓'을 하고 나서 '우리 집'이라는 지점에 화자가 희망하지 않는 결과를 일으키게 되었다. 행위주가 만든 결과물이 집을 향하여 이동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에다가'와 함께 나타나는 동사 중 세 번째 유형은 바로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것이다. 대표적인 동사는 '추가하다', '더하다', '보태다'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붙다'와 같이 기본적인 의미는 추가가 아니지만 '무엇에 더해지거나 생겨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동사도 이 유형에 놓기로 한다.

(25) ㄱ. 낭월이는 팔자 원국에다가 <u>추가시키</u>는 것이 있습니다.
ㄴ. 또는 자신과 동일한 성향에다가 <u>추가된</u> pixel로 복잡성이 증가한 진화된 자손을 번식할 수 있습니다.
ㄷ. 이 세 가지 방향에다가 최근에는 자유무역권 협정과 공동시장의 재건

이라는 블록화의 방향이 추가되었다.

ㄹ. 셋에다가 둘이 더 추가되었다.

ㅁ. 보고서 초안에다가 오늘 공청회 내용을 추가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활동결과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ㅂ. 그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틈틈이 받았던 상품권에다가 현찰을 합쳐서 구입한 건데, 전압이 맞질 않는지 자꾸 꺼져요.

ㅅ.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번 돈에다가 집에서 조금 보태서 혼수를 장만하였다.

ㅇ. 과학기술하고 정보통신을 갖다가 한 개 부처에다가 통합시켜 놓은 것, 그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본다면 미래지향적으로 가장 잘한 것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ㅈ. 그러니까 니 나이에다가 열살을 더해야 그것이 니 진짜 나이다.

ㅊ.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도 붙는다.

위의 '<1>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2>창조 동사'[2)]가 포함된 문장과 비교하면, 동사에 '추가'의 의미가 담길 때는 '에다가' 구문에서 동사의 의미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도 차이점을 찾을 수 있다.

아래 (26)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1>과 <2>에서의 동사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하므로 '붙다', '놓이다'와 '잠기다' 등이 들어가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그러나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3>에서는 '붙다'와 '추가되다' 등 자동사도 허용된다.

(26) ㄱ. *벽에다가 포스터가 붙는다.

ㄴ. *침대에다가 꽃이 놓였다.

ㄷ. *소녀는 손이 개울에다 잠기고 물장난을 하고 있다.

ㄹ. 이번 달에는 월급에다가 수당도 붙는다.

ㅁ. 이 세 가지 방향에다가 최근에는 자유무역권 협정과 공동시장의 재건

2) 아래로는 <1>, <2>와 <3>으로 각각 앞에서 언급한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창조 동사'와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세 가지 경우를 지칭한다.

이라는 블록화의 방향이 추가되었다.

유경화(2013)는 이와 같은 차이점은 '에다가' 선행명사의 의미적 특징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의에 따르면 선행명사가 처소명사일 때에 문장의 서술어는 타동사만 허용되고, 선행명사가 처소명사가 아니면 자동사도 사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보조사 '다가'의 문법화 정도의 차이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하였다.

(27) ㄱ. 물에다가 뭐 타서 먹었어요.
ㄴ. 나는 식은 밥에다가 된장찌개를 부어서 비벼 주었다.
ㄷ. 달력에다가 체크를 해 놓는데.
ㄹ. 제니퍼 로렌스의 미스틱은 당연히 CG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몸에다가 분장을 한 거였다.
ㅁ. 복잡한 거리서 널 한눈에 찾고 살며시 다가가 니 볼에다가 키스해.
ㅂ. 그런데 컴퓨터에다가 그것을 입력을 시켜 놨다가 삭제해서 없게 보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ㅅ. 저도 옛날에 빵틀에다가 빵 많이 만들어 먹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의에 의하면 위 (27) 예문 중에서 '에다가'의 선행명사인 '물', '밥', '달력', '몸'과 '컴퓨터' 등은 처소명사로 보기가 어려운 것 같으나, 이 문장들의 동사는 타동사만 가능하다. 따라서 '처소명사'처럼 개별 단어의 어휘적 의미에만 의존하여 제시된 근거는 주관적인 경향이 강하므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에다가' 구문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동사 유형, 즉 이동 의미를 가지는 동사, 창조 동사와 추가 의미를 가지는 동사를 일일이 살펴보았다. 이 중에서 <1>과 <2>는 서술어 제약도 비슷하고 본질적으로 모두 '착점을 향한 이동'의 의미를 담고 있다. 따라서 <1>과 <2>에서 보조사 '다가'의 의미적 기능은 모두 '접근'이라고 본다. 비교적 특별한 특성을 지닌 <3>의 보조사 '다가'는 접근의 과정보다 '추가'라는 결과를 더 중요시하므로 '추가'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겠다.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결합한 선행명사는 서술어의 논항으로 문장에서 기능하고, 그들의 의미역을 따져보면 '다가'의 의미기능이 '접근'일 때 해당 논항은 착점(GOAL)이다. 반면 '다가'가 '추가'의 의미를 가질 때는 해당 논항, 즉 '에다가'의 선행명사는 추가된 대상(THEME)으로 볼 수도 있고 동시에 추가된 대상이 가야 할 착점(GOAL)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에다가' 구문에서 자동사 사용의 조건은 선행명사가 처소명사인지의 여부로 판단하기보다는, '다가'가 '추가'의 의미로 기능할 때에 자동사도 쓰일 수 있다는 것, 혹은 '에다가'가 포함된 논항이 '착점' 외에 '대상역'도 할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 문장에서 자동사가 쓰일 수 있다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자동사 사용 제약의 원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했던 예문 일부를 뽑아서, 원래 타동사인 서술어를 피동형으로 바꾸고, 이렇게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에다가' 구문에서 서술어의 역할을 관찰하려고 한다. 연결어미가 요구하는 선후행절 주어 일치 제약을 고려하여 일부 문장을 삭제하였다. 아래 예문의 동사들이 자동사로 바뀌자 나서 문장이 비문이 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점은 피동형이 나타나는 문장에서 부사격조사는 '에다가'를 쓸 수 없지만, 보조사 '다가'를 빼고 '에'만은 쓸 수 있다는 것이다.

(28) ㄱ. 책은 여기다가 <u>놓고</u>.

ㄱ'. *책은 여기다가 <u>놓이고</u>.

ㄴ. 달아나다가 물에다가 바위를 <u>던졌다</u>.

ㄴ'. *물에다가 바위가 <u>던져졌다</u>.

ㄷ. 내가 우리 아들 보내고 진짜 가슴에다가 <u>묻었어요</u>.

ㄷ'. *우리 아들이 내 가슴에다가 <u>묻혔어요</u>.

ㄹ. 그곳에다가 쇼핑몰과 놀이공원, 스포츠 시설을 두루 갖춘 진정한 의미의 자족적인 공간이 <u>만들었다</u>.

ㄹ'. *그곳에다가 쇼핑몰과 놀이공원, 스포츠 시설을 두루 갖춘 진정한 의미의 자족적인 공간이 <u>만들어졌다</u>.

위에 제시된 능동문과 피동문에서 기술된 사건 자체는 같은 것이나 적용될 수 있는 부사격조사가 다르다. 능동문이든 피동문이든 대상이 외부의 힘에 의하여 움직이게 된다는 것은 같아서, 이러한 차이점을 단순히 동사의 자타동의 차이로 설명하기는 무리이다. 김윤신(2001)에서는 동작성이 강한 동사는 피동접사가 결합되면 동작성이 약해지는 동시에 상태성이 강해진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능동문에서는 기술된 사건의 중점이 동작 과정에 있다면, 피동문에서는 상태성을 좀 더 많이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에다가' 구문에서의 이동은 외부의 힘에 의하느냐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이외에는 <1>과 <2>의 조사 '에다가'는 '에'보다 이동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하여 동작성을 좀 더 요구하지 않는가 싶다.

또한, 아래 (29)에서 제시된 중세한국어나 근대한국어 문헌 자료를 보면 '다가' 구문의 서술어는 반드시 타동사여야 했다는 제약을 알아낼 수 있다.

(29) ㄱ. 엇뎨 시러곰 나ᄅᆞᆯ 보내야 네 ᄀᆞ쇄다가 두려뇨 <杜重25:27b>
ㄴ. 어듸다가 두고 ᄌᆞ식 ᄃᆞ리고 자내ᄅᆞᆯ 그려 살려뇨 ᄒᆞ노이다 (1586 이응태묘출토언간)
ㄷ. 오직 文潞公이 家廟ᄅᆞᆯ 西京의다가 셰오고 <家禮1:8a>
ㄹ. 그 대강이니 잡은 ᄡᆞᆯ 器械ᄅᆞᆯ 다 아래다가 버리노라 <煮焄19a>
ㅁ. 여긔다가 비교ᄒᆞ면 여러 층 ᄡᅥ러질쇠 <日東壯遊歌4>
ㅂ. 굴독은 ᄯᅡ에다가 구멍을 ᄯᅮᆯ럿더라 <독립신문 1896>

이에 대하여 '다가'의 기원 동사인 '다그-'가 원래 타동사이기 때문에, 조사로 기능하게 된 후에도 뒤에 오는 동사가 반드시 처격의 부사어를 필요로 하는 타동사라는 주장이 있다(박용찬 2014ㄴ). 그러나 중세한국어나 근대한국어에서 나타난 사용양상과 달리, 위에서 논의했듯이 현대한국어에서는 부사격조사 '에다가'가 '추가'의 의미를 가질 때에 타동사 외에 자동사와의 공기도 가능하다. 다시 말하자면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이전 시기에 비하여 새로운 통사·의미적 기능이 생긴 것이다.

한용운(2004)에서는 문법화를 겪어서 형성된 복합조사를 판별하는 기준 중 하나로, 새로운 의미나 기능을 갖게 되는 것을 제시했다. 원래 타동사에만 적용될 수 있는 '에다가' 구문은 현대한국어에 와서 자동사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의미 면에서도 원래 '접근'의 의미기능만 있다가, 현대한국어 용례에서 '추가'라는 새로운 의미기능도 생기게 되었다. 이는 바로 문법화로 인하여 원래 두 개로 인식된 조사 '에'와 '다가'가 하나로 굳어져 가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추가'는 '나중에 더 보태다'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자면 추가하는 동작을 하기 전에, 원래 거기에 무엇이 이미 존재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한다. 기존에 있는 대상에 같은 종류나 유사한 종류의 대상을 더 넣는 것이 추가라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추가 전의 대상과 추가물의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살펴본 '에다가'의 기본적 문형인 'NP1이 NP2를 NP3에다가 V'와 'NP2가 NP3에다가 V'에서, '에다가'의 의미적 기능에 따라 'NP2'와 'NP3'의 관계를 보도록 한다.

먼저 부사격조사 '에다가'가 '접근'의 의미를 가지는 예문 중에서 전형적인 용례를 뽑아서 문장 중의 이동 대상 'NP2'와 '에다가' 선행명사 'NP3'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30) ㄱ. 김윤수의 아내가 오늘은 삼각형으로 생긴 유리잔에다가 샴페인을 따랐다.
ㄴ. 자기가 사들인 땅에다가 제 아버지의 무덤을 조성하는데 누가 못하게 막을 것인가.
ㄷ. 저희는 의원들이 카톡방에다가 좋은 법안이면 같이 법안을 공동발의를 해서 공동발의를 하겠다고 요청을 했는데.
ㄹ. 저 역시 블로그에다가 글을 올리고 친구들의 블로그를 방문하며 소일하지요.
ㅁ. 저도 옛날에 빵틀에다가 빵 많이 만들어 먹었다.
ㅂ. 지팡이 끝에다가 고무 조각을 씌우면 그렇게 미끌거리지 않을 텐데요.
ㅅ. 사람 다니는 길에다가 아침 저녁으로 개를 데리고 와서 용변을 보게 하면 어떡합니까.
ㅇ. 이 경우는 달랑 텐트 하나에다가 돗자리 하나 펴놓고 있는 경우가 많

다.

(30)에서 보듯이, '다가'가 '접근'이라는 의미를 가질 때에 'NP2'와 'NP3'는, 예를 들어서 '유리잔과 샴페인', '땅과 무덤', '카톡방과 요청'과 '빵틀과 빵' 등, 의미역으로 따져 보면 이동의 대상과 착점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물론, 대부분 문장에서는 'NP2'와 'NP3'이 '유리잔과 샴페인'처럼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으나, (30ㅅ)의 '길'과 '용변'은 크게 연관된다고 볼 수 없는 것 같다. 따라서 'NP2'와 'NP3' 명사 자체는 문장에서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에서 벗어나서는 긴밀한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또한, 'NP2'는 'NP3'에 접근하고 완전히 접촉한 후에도, 둘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두 가지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샴페인은 아무리 유리잔에 담겨 있어도 잔과 내용물이 쉽게 구분이 되고, 무덤이 땅 위에 조성된다고 해도 땅이 무덤이 되거나 무덤이 철저히 땅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어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에 '추가'의 의미가 담길 때 'NP2'와 '에다가' 선행명사 'NP3'의 특성을 살펴보겠다.

(31) ㄱ. 월급에다가 수당도 붙는다.

ㄴ. 그동안 방송 출연하면서 틈틈이 받았던 상품권에다가 현찰을 합쳐서 구입한 건데, 전압이 맞질 않는지 자꾸 꺼져요.

ㄷ. 보고서 초안에다가 오늘 공청회 내용을 추가해서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최종 활동결과 보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ㄹ. 땅값에다가 주택건설비용을 합한 주택가격의 경우 도쿄의 표준적인 단독주택이 1억3천2백만

ㅁ.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번 돈에다가 집에서 조금 보태서 혼수를 장만하였다.

(31)에서 제시된 것처럼 '추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경우에는, 'NP2'와 'NP3'이 같은 종류에 속하고 있고 아주 비슷한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월급과

수당'은 모두 돈이자 근로자의 수입이고, '상품권과 현찰'은 모두 돈에 해당하는 결제 수단이며, '초안과 오늘 공청회 내용'도 같은 보고서에 적을 것이므로 내용상의 유사성이 존재한다. '번 돈에다가 집에서 조금 보탠다'라는 문장에서 보태는 대상인 'NP3'은 나타나지 않으나 '돈'인 것은 분명하다. 이처럼 일부 문장에서 'NP3'이 'NP2'와 같은 것이기에 생략될 수 있다. 그리고 'NP2'와 'NP3'이 접촉하더라도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앞선 경우와 달리, 여기서의 'NP2'와 'NP3'은 합치고 나서 구분할 필요가 없고 아예 하나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돈에다가 집에서 보태다'라는 문장처럼 목적어를 아예 생략되는 경우도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을 요약하자면 '에다가' 중의 보조사 '다가'가 '접근'의 의미를 가지면 구문에서 나온 'NP2'와 'NP3'은 같은 종류일 가능성이 작고, 대상을 착점에 두게 되어도 둘을 하나로 보기 어렵다. 반면에 '추가'의 의미를 가질 때 'NP2'와 'NP3'은 유사성을 공유하거나 같은 종류에 속할 확률이 높고, 합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물론, 위에서 제시된 'NP2'와 'NP3'의 관계만으로 조사 '에다가'의 의미가 접근인지 추가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는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고 조사의 의미적 기능 결국은 조사구와 서술어의 관계에서 파악해야 한다.

중국어에서는 전치사 '把'로 목적어를 동사 앞에 두고 외부로부터 대상에게 '처치'를 가하는 의미를 가지는 형식이 '把字句(把자문)'에서 흔히 보인다. '把자문'의 '처치(處置)' 의미는 王力(1943)에서 처음으로 제시하고 이는 지금까지도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는 견해이기도 하다. 위에서 살펴본 부사격조사 '에다가' 구문은 반드시 외부의 힘에 의하여 대상에게 위치 이동을 일으키게 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유사성을 보인다. 이에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처치'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기로 한다.

장회견(2015)에서는 중국어 백화문에서 나타난 전치사 '把/将'이 중세한국어 언해 자료에서 조사 '을/를다가'로 번역되어 있고, 조사 '을/를다가'가 목적어에 대한 '처치'의 의미도 똑같이 나타낼 수 있다고 본다. 현대한국어에 와서 목적격조사 '을/를'과 '다가'가 결합된 형식은 이미 완전히 사라졌지만, 손혜옥

(2012)에 따르면 현대한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을/를 갖다가'[3] 구성은 '把자문'과 비슷하게 목적어를 강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여 '처치'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을/를다가'와 '을/를 갖다가' 구성에 비하여 본 장에서 논의된 부사격조사 '에다가'에서는 '처치'의 의미가 전형적이지 않다.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벽에다가 포스터를 붙인다' 같은 문장에서 행위주가 목적어인 '포스터'를 처치한다고 볼 수 있어도, '우리 집에다가 무슨 짓을 했을까'나 '니 볼에다가 키스해' 등을 처치의 의미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인 것 같다. 뒤에 논의할 조사 '한테다가/에게다가'와 '로다가' 구문에서는 이와 같은 '처치'의 의미가 거의 다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조사 '다가'의 기원적인 용법인 '을/를다가'는 원래 중국어 '把자문'과 유사하게 '처치'의 의미가 있었는데, '에다가'에 와서 이러한 의미가 좀 더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테다가/에게다가'와 '로다가' 구문에서는 아예 소멸한 것으로 보인다.

본 절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자면, 부사격조사 '에다가' 중의 '다가'는 두 가지 의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서술어의 의미적 특성에 따라서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나 '창조 동사'와 함께 쓰일 때 '다가'는 '접근'의 의미를 담고 있고,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공기하면 '추가'의 의미를 가진다.

박용찬(2014ㄱ)에서는 기원적으로 보면 조사와 결합하는 '다가'는 타동사 '다그-'에서 유래되었고, 동사와 연결어미 '아'가 결합된 '다그-'의 활용형이라고 하였다. 전후민(2014)과 예선희(2015)에서는 17세기에 본래의 동사 '다그-'의 의미는 주로 '가까이'만 있다고 주장하였고, 백낙천(1996)에서도 이때 '다가'의 의미는 '근접'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즉 중세한국어나 근대한국어에서 처격조사 '에/의/ᄋᆡ/애' 뒤에 오는 '다가'의 주된 의미기능은 본래의 동사 '다그다'의 의미와 동일하게 '가까이'이고, 곧 위에서 제시된 '접근'과 같은

3) 본 연구에서 '갖다가'는 동사 어간 '가지'+ 연결어미 '-어'+ 보조사 '다가'로 형성된 '가져다가'의 축약형으로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갖다가' 중의 '다가'도 보조사로 본다.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본고는 위의 두 가지 의미 기능 중에 '접근'이 '다가'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이라고 본다.

2.1.3. 부사격조사 '에다가' 용법의 확장

2.1.3.1. 시점을 향한 이동

위에서 논의된 '에다가'의 의미적 기능은 가장 전형적인 용법에서 수행되는 것이다. 그 외 확장된 용법도 발견되었다. 조사 '에다가'는는 '접근'의 의미를 가질 때에 대상이 착점을 향하여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이동은 공간적인 이동을 가리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아래 문장에서 보이듯이 시간적 이동, 즉 특정 시점을 향한 이동도 나타낼 수 있다. 아래 문장에서 그녀는 자기의 인생을 스무 살 가을이라는 착점을 향하여 이동시키고 나서 정지시키고 싶다는 것이다. 즉 어떤 시점에 머물게 한다는 것이다. 이는 어떤 실체를 공간적 착점에 두는 것과 아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32) 인생이 비디오로 볼 수 있는 영화 필름이라서 어느 순간이든지 스톱시키고 다시 볼 수 있다면 그녀는 <u>스무 살 가을에다가</u> 정지시키고 싶은 것이었다.

임동훈(2017)에서는 '처소'라는 개념은 원래 시간과 공간을 한데 묶은 것이고, 처소 중에서는 공간 개념이 더 기본적이라고 지적하였다. 여러 언어에서 발견되듯이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은 공간을 나타내는 표현에서 파생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간적 처소와 함께 쓰이는 표현이 시간적 처소에 확장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따라서 원래 공간적 이동을 표시하는 부사격조사 '에다가'도 시간적인 이동을 제시하는 것으로 용법이 확장되었다. '에다가'로 제시된 이동은 대상을 외부의 힘에 의해 이동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공간적 이동과 달리, 시간의 흐름은 외부의 힘에 의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다. 따라서 '에다가'가 나타내는 시간적 이동의 용례는 많이 보이지 않는다.

2.1.3.2. 상태 유지와 관련된 표현

예문 (33)에서 제시된 '손에다가 쥐다', '입에다가 물다'와 같은 표현은 일상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용법을 고려하면 어긋나는 부분도 있다.

(33) ㄱ. 저 제비 거동 보소. 보은표 박씨를 입에다가 물고, 이리 저리 나온다.
ㄴ. 왜 이 사무라이는 검이 세 개인 거예요? 게다가 하나는 입에다가 물고 말이죠.
ㄷ. 용이 용트름을 해가지고 입에다가 연꽃 봉오리를 물고 있는 형상이에요.
ㄹ. 이 세신이라는 약을 끓여서 그 물을 입에다가 머금고 있다가 식으면 삼킵니다.
ㅁ. 돈은 음식값 무엇 할 것 없이 십 원 한 장만 노파 손에다가 쥐어 주구 나오게!
ㅂ. 눈물로 먹을 갈고 백발로 붓 만들어, 떨리는 손에다가 붓을 쥐니, 붓 따라 떠는 글로, 이석연아 이석균아 사는 곳이 어디메.
ㅅ. 원래 폰 손에다가 쥐고 걷는데 요즘엔 걍 주머니에 넣고 다님.

원래 동사 '쥐다'와 '물다'는 어떤 물건을 떨어지지 않도록 손이나 입술이 힘주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로, 부사격조사 '에다가'가 요구하는 위치 이동과 관련이 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용법도 '에다가'의 전형적인 용법에서 확장된 것으로 생각된다. 문장에서 드러나지는 않지만, 서술된 대상이 손이나 입에 닿기 전에 위치 이동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이동하는 과정에 대한 진술을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손이나 입에 닿는 상태의 유지를 더욱 강조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용법은 '무엇은 어디에다가 놓고 이러한 상태를 유지한다'라는 의미를 간략하게 '손에다가 쥐다'와 '입에다가 물다/머금다'로 나타내는 것이다.

2.1.4. 부사격조사 '에'와 '에다가'

위에서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두 가지로 나누었고, 이를 통하여 보조사 '다가'는 '접근'과 '추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접근의 의미를 나타내는 일부 문장에서 '에다가'의 사용은 제한되어 있다. 이때는 '에'와 '에다가' 간의 세부적인 차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한다. 아래 예문 (34)에서 '에'와 '에다가' 사용상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34) ㄱ. 벽에 침을 뱉었다.
ㄴ. 벽에다가 침을 뱉었다.
ㄷ. 하늘에 침을 뱉었다.
ㄹ. ?하늘에다가 침을 뱉었다.

(34ㄱ)과 (34ㄴ) 두 예문은 똑같이 벽을 향하여 침을 뱉었다는 사건을 기술하는 것인데 자세히 따져 보면 미세한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34ㄱ) '벽에 침을 뱉었다.'라는 문장에서 벽은 뱉은 침이 반드시 닿아야 하는 목적지라기보다는, 침이 가는 방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제시하는 참조물이다. 침은 결국 벽에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다. 선행명사를 확실히 존재하고 있는 실체인 '벽'에서 상대적으로 추상적인 '하늘'로 바꾸어도, (34ㄷ)처럼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문장에서 '벽에다가' 중의 '벽'은 침이 닿을 수 있어야 하는 착점이다. 선행명사 '벽'을 (34ㄹ)와 같이 '하늘'로 대체해 보면 수용성이 떨어질 것이다.

(35) ㄱ. 도저히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황제는 하늘에다가 기도를 하게 된다.
ㄴ. 난 하늘에다가 성을 짓고 있거든. (동화 이야기)
ㄷ. 천국에다가 데려다 줄게 (가사)

말뭉치에서 '하늘에다가'와 '천국에다가'를 검색하면 위의 (35)에서 보이는 용례만 나온다. (35ㄱ) 중에 '기도한다'라는 말은 원래 방향성이 거의 없는 자동사인데, 여기서 '하늘에다가'와 공기하면 '소원을 하늘을 닿게 한다'는 의미가 더욱 뚜렷이 나타날 수 있다. '소원'과 '하늘'은 둘 다 추상적인 개념이고,

다소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에다가'를 붙일 수 있다. 그 아래의 예문들도 동화 이야기에서 나오거나 비유적인 표현이라서, 조사 '에다가'가 적용될 수 있는 예들이다.

'하늘'이라는 것은 분명한 경계를 가지는 작은 지점이 아니며 어떤 넓은 공간 개념이기 때문에, '에다가'보다는 '에'와의 결합이 더욱 자주 보인다. 그래서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도달 가능한 착점을 나타내는 선행 명사와 함께 사용되고, 대체적인 방향성을 표시할 수는 없다고 추정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조사 '에'와 '에다가'가 방위 명사와 공기하는 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방위를 표시하는 명사나 명사절은 지구의 중력에 따른 절대적인 방향과 상대적인 방향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말뭉치에서 절대적인 방향인 '남쪽', '서쪽', '북쪽', '동쪽'이 단독으로 출현할 때, '에'와 '에다가'를 붙인 용례를 각각 검색해 보았다.

조사 '에'의 경우에는 '에'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면 거의 'X쪽에...있다/없다'의 문형으로만 나타난다. 이와 같은 문장은 어떤 장소에 무엇의 유무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처소격조사 '에'와 결합하는 'X쪽'은 절대적인 방향을 나타낸다기보다는 'X쪽의 어딘가'와 유사한 구체적인 처소를 의미한다. '남쪽', '서쪽', '북쪽', '동쪽'과 조사 '에다가'가 공기하는 용례를 찾아보니 남한과 북한을 가리키는 '남쪽'과 '북쪽' 이외에는 다른 용례를 찾을 수 없었다. 위에서 제시했듯이 '에다가'는 반드시 이동을 일으키고 동사와 함께 사용된다. 따라서 조사 '에'가 유일하게 사용 가능한 'X쪽에...있다/없다' 구문에도 '에다가'가 사용될 수 없다.

반면에 상대적인 방위를 표시하는 '안', '위', '앞', '바깥'과 '아래' 등은 '에다가'와 공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방위 명사는 보통 앞의 명사, 즉 참조물에 의존한다. 즉 '명사+방위 명사' 구성은 방향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정된 지점을 나타낸다. 따라서 뒤에 '에다가'의 후행이 가능해진다.

(36) ㄱ. 그리고 안에다가 화약을 알차게 채운다.

ㄴ. 우리 위원들 책상 위에다가 같이 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ㄷ. 또한 유럽인들은 정부에서 세운 병원 앞에다가 아이들을 내다 버리기도 했는데.

ㄹ. 벽의 바깥쪽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궁전(팔라티움)을 건설했다.

ㅁ. 이름 아래다가 동그라미 쳐서 제출해.

ㅂ. 미국의 부유한 후원자들이 금문교의 남쪽에다가 재단(財團)을 하나 지어준 것이다.

황화상(2012)에 따르면 부사격조사 '에'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범위의 끝'을 표시한다고 하였다. 즉 조사 '에'는 특정의 지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반면에 공간 개념과 자주 공기하는 부사격조사 '로'는 '이동의 방향'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로'로 제시된 이동의 방향은 꼭 특정의 지점일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이동과 관련된 부사격조사 '로', '에'와 '에다가'를 비교해 보면, 먼저 '로'는 착점을 중요시하지 않고 큰 방향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에'는 방향성보다는 특정한 지점인 착점이 있어야 사용될 수 있는데, 그 착점은 비교적 크고 경계가 분명하지 않아도 된다. 마지막으로 조사 '에다가'도 '에'와 마찬가지로 착점을 반드시 요구하고, '에다가'로 제시되는 착점은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한다. 즉 '하늘'과 같은 넓은 범위보다는 작은 점으로 여길 수 있고 대상이 도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 가능한 지점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34ㄹ)은 일부 경우에서는 자연스러울 수도 있다. '하늘'이라는 개념 또한 두 가지의 이해가 가능하다. 첫 번째는 사전에 등재된 '지평선이나 수평선 위로 보이는 무한대의 넓은 공간', 즉 '상천(上天)'과 같은 뜻으로 구체적인 공간을 지칭한다. 두 번째는 '하늘'로 '허공'이라는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수도 있다. (34ㄹ)에서 나온 '하늘'이 '상천'을 의미할 때는 문장이 어색할 수 있으나, '허공'을 의미할 때는 문장이 비교적 자연스럽다. '상천'은 경계가 없어서 도달했는지를 판단하기 어렵다. 이에 반해 '허공'이라는 개념은 화자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형성된 것이라서, '허공에다가 침을 뱉었다'라고 하면 화자 자신이 침이 허공에 닿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하늘'은 '허공'의 의미를

담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착점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에다가' 구문에서 착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될 수 있다.

2.2. 접속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

2.2.1. 접속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기능

이규호(2006)에 따르면, 단어, 구, 절, 문장 따위의 언어 단위들끼리 이어지게 하는 문법장치를 소위 접속사(connective, 이음씨)라고 부른다. 한국어의 접속사는 문법적 범주에 따라서 접속부사, 접속조사, 의존명사와 연결어미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단어와 단어를 연결시켜 주는 장치는 바로 접속조사이다. 현대한국어에 대표적인 접속조사는 '하며, 이고, 이니, 이나, 이든, 이랑'과 '에, 에다가' 등이 있다. 접속조사로 이어진 두 접속항은 대등적 관계를 가진다. 접속항 간의 의미적 관계를 더 세분하면, '이든, 이나'로 나타내는 '선택'과 '이랑, 이고, 에, 에다가' 등으로 표시되는 '나열', 그리고 '말고'와 같은 접속조사로 표시하는 '대조'의 3가지가 있다. 본고의 연구 대상인 조사 '에다가'는 보통 '나열'의 의미적 기능으로 인정된다.

조사 '에'는 둘 이상의 사물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줄 때에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문법2》에서 모두 접속조사로 등재되어 있다. 같은 의미 기능을 가지는 조사 '에다'나 '에다가'는 《연세한국어사전》에서만 '갇힌 언어 단위 내에서 기능함'으로 접속적인 용법을 인정한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격조사만으로 등재되어 있다. '에다가'에 대한 사전 기술은 보다 일관성이 떨어진 것이다. 본 연구는 명사나 명사구를 접속시키고, 나열의 의미를 가지는 조사 '에'와 '에다가'는 모두 접속조사로 보고 논의를 전개하도록 한다.

먼저 접속조사 '에'의 용법을 간단히 볼 것이다. 아래에서 보이듯이 여러 개의 명사나 명사구를 연결할 때에 접속조사 '에'는 보통 'NP1에 NP2에...'나

'NP1에 NP2에 NP3...'의 형식으로 나타난다. 즉 맨 마자막 명사구에는 접속조사 '에'를 수의적으로 붙일 수 있다. 중세한국어의 접속조사는 명사구마다 모두 붙어야 했으나, 현대에 올수록 이러한 제한이 사라지고 일부 접속조사는 마지막 접속항에 수의적으로 붙게 되다. 또한 '에'로 이어진 각 명사구는 하나로 묶여서, 목적어든 부사어든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고 있다.

(37) ㄱ. 잔칫집에서 밥에 떡에 술에 아주 잘 먹었다.
ㄴ. 아버지가 책에 연필에 장난감에 이것저것 많이 사 주셨다.
ㄷ. 그 식당은 자장면에 비빔밥에 돈가스에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ㄹ. 화려한 집에, 아름다운 옷에, 맛나는 음식에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ㅁ. 중상모략에 협박에 갖은 짓을 다 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이젠 염탐꾼까지 보내?
ㅂ. 맥주 열 병에 갈비 육 인분에, 소주 두 병 주세요.

(37)에서 사용된 접속조사 '에'에 보조사 '다가'를 붙여 접속조사 '에다가'로 대체하면, (38)에서 보듯이 모든 문장이 여전히 성립한다. 제시된 예문뿐만 아니라 대부분 문장에서 접속조사로 쓰이는 '에' 뒤에 '다가'를 자유롭게 첨가할 수 있으나,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38) ㄱ. 잔칫집에서 밥에다가 떡에다가 술에다가 아주 잘 먹었다.
ㄴ. 아버지가 책에다가 연필에다가 장난감에다가 이것저것 많이 사 주셨다.
ㄷ. 맥주 열 병에다가 갈비 육 인분에다가, 소주 두 병 주세요.
ㄹ. 며느리는 쟁반에다가 약식에다가 식혜에다가 나박김치까지를 몽땅 얹어 가지고 왔다.

김승곤(2018)에서 접속조사 '에'를 '에다가'로 대체 불가능한 경우를 논의하였다. 논의에 따르면 '에다가'로 대체 가능한 경우는 '…에 …에'의 문형으로 쓰이며, 이때의 접속조사 '에'는 각 명사구를 나열하여 이어주는 의미적 기능을

가진다. 대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에'는가 한 번만 나타나고, 겹치지 않는 접속조사로 여겨진다. 이와 비슷하게 유경화(2013)에서도 아래 (39)와 같이, '에'가 '에다가'로 바뀔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39)에서 제시된 것처럼 같은 명사가 '에'의 반복으로 나타나는 관용적 용법을 제외하고, 접속조사 '에'와 '에다가'의 사용양상은 전적으로 같다고 볼 수 있다.

(39) ㄱ. 이렇게 후퇴에/*에다가 후퇴를 거듭하면서 이곳까지 쫓겨 왔다. (유경화 2013)
ㄴ. 지금 우리 문학은 발전에/*에다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희자・이종희 1998)
ㄷ. 그들은 노력에/*에다가 노력을 더하여 이 큰 사업을 이루어 내었다. (김승곤 2018)
ㄹ. 절약에/*에다가 절약을 하여 그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김진수 1987)

그러나 아래 (40)에서 볼 수 있듯이 접속조사로서 '에'나 '에다가'의 사용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도, 만약 '다가'를 대신하여 '에' 뒤에 다른 보조사가 온다면 (41)처럼 문장이 어색해지는 것 같다.

(40) ㄱ. 맥주 열 병에다가 갈비 육 인분에다가, 소주 두 병 주세요.
ㄴ. 당장이라도 저 물줄기를 타들어 가는 논에다가, 밭에다가 가져다 대고 싶었습니다.
ㄷ. 그 식당은 자장면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돈가스에다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ㄹ. 명예에다가 권력에다가 아무 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41) ㄱ. ?맥주 열 병에는 갈비 육 인분에는, 소주 두 병 주세요.
ㄴ. ?당장이라도 저 물줄기를 타들어 가는 논에만, 밭에만 가져다 대고 싶었습니다.
ㄷ. ?그 식당은 자장면에도 비빔밥에도 돈가스에도 없는 게 없이 다 있

어.

ㄹ. ?명예에도 권력에도 아무 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41)에는 원래 '다가'가 나타나는 자리에서 보조사 '은/는', '만'과 '도'로 대체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보면 문장의 수용성이 모두 어느 정도 떨어진다. '에만'이나 '에도'로 나타날 때에 아예 비문이 될 수 있을 만큼은 어색하고, '에는'의 형식으로 쓰이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으나, '맥주 열 병에는'의 보조사 '은/는'은 접속조사 '에'가 수행하는 '추가' 의미와 전혀 상관없이 앞에 내용 전체를 하나의 주제어처럼 만드는 느낌이 더 강하다. 그렇기에 접속조사 '에다가' 중의 '다가'는 다른 보조사로 대체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유경화(2014)에서는 형태적으로 보면 복합조사는 분리, 교체, 내적 확장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접속조사 '에다가'는 하나의 연속된 형식, 즉 어느 정도 복합조사로 굳어졌기 때문에, 일부만 다른 것으로 교체하면 성립하지 못한다.

다음으로는 접속조사 '에다가'로 연결된 각 접속항의 문법적 지위를 판단한다. 그 뒤 접속조사 '에다가'의 용례를 명사구와 명사구를 이어준 경우와 명사구와 절을 이어준 경우로 나눠서[4] 접속조사 '에다가'의 용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2.2.1.1.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하는 '에다가'

먼저 접속조사 '에다가'가 명사나 명사구를 접속시키는 경우를 살펴볼 것이다. '에다가'에 의하여 연결된 성분은 문장 안에 서술어와의 관계에 따라 논항일 때와 비논항일 경우로 나눠서 각각 살펴볼 것이다. 우선, 서술어가 반드시 요구하는 논항을 담당할 때에 접속조사 '에다가'의 용례를 같이 보도록 한다.

---

4) 구본관 외(2015)에서는 한국어 문법 단위인 구는 하나의 단어만으로도 형성될 수 있고, 절이라는 문법 단위에 대하여 모든 '주어+서술어' 구조를 절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하였다. 물론 '주-술'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주부가 생략될 때에도 절로 인정된다.

(42) ㄱ. 뒤이어 땀 흘리는 보람에다가 함께 나누는 눈물과 웃음이 있어요.
ㄴ. 하지만 10여 분 뒤 출발한 이 열차에는 기존 승객에다가 열차 출발 지연으로 인해 옮겨탄 승객까지 한꺼번에 몰리면서 큰 혼잡이 빚어졌다.
ㄷ. 폭염, 폭우에다가 탄저병까지 퍼져 작황이 지난해보다 40%가량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ㄹ. 슬기로움에다가 씩씩한 넋, 이 두 가지는 바로 《종이 봉지 공주》에서 '종이 봉지를 입은 공주'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가장 크고 굳센 힘입니다.
ㅁ. 변호사 사무실이 의뢰인으로 미어터져야 될 비쥬얼에다가 능력까지 출중한데.
ㅂ. 양복에다가 와이셔츠까지 모두 벗어버리고서 지금 그는 속옷 차림으로 앉아있는 것이었으므로, 어쩌면 옷을 벗고 나서 다시 넥타이를 손목에 감은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ㅅ. 사랑에다가 보금자리까지 잃었으나 유미리 님은 새 목숨을 맞이하며 새 삶을 찾습니다.
ㅇ. 그는 2년간의 투옥 생활로 심한 우울증에다가 폐병까지 앓아야 했다.
ㅈ. 맥주 열 병에다가 갈비 육 인분에다가, 소주 두 병 주세요.
ㅊ. 당장이라도 저 물줄기를 타들어 가는 논에다가, 밭에다가 가져다 대고 싶었습니다.

(42)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서술어와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구성 요소로, 논항을 담당하고 있다. 예문에서 보이듯이 몇 개의 명사구가 '에다가'에 의하여 연결되고 하나로 묶여서,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성분으로 기능하고 하나의 의미역을 할당받는다.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에다가'로 연결된 것은 논항으로 기능할뿐더러, 논항이 아닌 것으로 기능할 수도 있다. (43)에서 밑줄 친 부분은 문장의 서술어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지 않고, 보통 부가어로 기능한다. 이때도 위와 같이, '에다가'로 연결되어 하나의 부가어로 문장에서 기능하게 된다.

(43) ㄱ. 그 식당은 자장면에다가 비빔밥에다가 돈가스에다가 없는 게 없이 다

있어.

ㄴ. 화려한 집에, 아름다운 옷에다가, 맛나는 음식에다가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다.

ㄷ. 명예에다가 권력에다가 아무 것도 부러운 것이 없다. (김진수 1987)

ㄹ. 노트에다가 책에다가 해서 책상 위가 지저분하다. (김진수 1987)

위와 같이 접속항이 명사나 명사구일 때, 접속항 뒤에 '까지'와 같은 보조사가 온다면 보통 그 뒤에 더 이상 접속될 수 없으나, 접속항의 개수 자체는 크케 제한 되어 있지 않다. '에다가'로 두세 개의 명사구를 연결할 수 있고 무한수의 명사구를 연결할 수도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볼 '에다가'가 명사구와 절을 이어주는 경우에는, 보통 접속항이 두 개밖에 올 수 없다.

2.2.1.2. 명사구와 절을 연결하는 '에다가'

위에서는 접속조사 '에다가'로 여러 개의 명사나 명사구를 접속시켜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기능하게 하는 경우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실제 용례 중에서는 '에다가'로 이어주는 것은 명사나 명사구 외에 다른 것도 있고, 그런 경우의 출현빈도가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에다가'로 명사구와 절을 이어주는 경우를 보도록 한다.

(44) ㄱ. 꽃초밥과 함께 일반적인 초밥도 주문. 안정적인 솜씨에다가 가격도 착한 편이다.

ㄴ. 로스트 시리즈는 짧은 책에다가 별 지식도 없어 보이지만, 읽는 중간중간에 터드가 제공해 주는 지식을 읽다보면 금방 지식이 내 머릿속으로 흡수된다.

ㄷ. 특히 43.3도에 육박하는 고온 건조한 날씨에다가 강풍마저 불면서 산불이 무서운 기세로 번지고 있다고 샌타바버라 카운티 소방국은 전했습니다.

ㄹ. 이렇다할 계획도 없이 훌쩍 떠난 1박 2일의 짧은 시간에다가 무슨 기억에 남을 유별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44)에서 보인 문장들은 접속조사 '에다가'로 두 개의 접속항을 연결해 주었다. 첫 번째 접속항인 '안정적인 솜씨', '짧은 책'과 '건조한 날씨' 등은 전형적인 명사구이다. 그러나 접속항 중에 뒤에 오는 부분인 '가격이 착하다', '강풍이 불다', '별 지식이 없다' 등은, 구본관 외(2015)의 기준에 따르면 주어와 서술어가 모두 갖추어 있으므로 절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접속조사의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일단 접속조사 가장 기본적인 문법기능은 각 접속항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 준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 접속항은 같은 통사적 층위에 처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한국어 조사의 형태론적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결합 대상이 체언이라는 점이다. 체언이라는 개념은 명사나 명사구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체언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절도 물론 조사의 결합 대상에 들어가 있다. 즉 조사 '에다가'로 연결된 각 요소는 체언적인 속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래서 보이는 (45ㄱ)을 예로 들자면, 접속항인 명사구 '똑같은 옷'과 절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가격은 왜 그리 비싼 건지요'는 분명히 같은 문법적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조사의 결합대상이 체언적 특성이 있어야 되는데, 주술 부분을 모두 갖춘 절, 심지어 문장으로 봐도 되는 접속항 '가격은 비싸다'에서는 체언적 특성을 찾기 어렵다.

(45) ㄱ. 그렇지만 맨날 똑같은 옷에다가 가격은 왜 그리 비싼 건지요.

ㄴ. 요즘 드라마, 너무 뻔한 스토리에다가 유치하고 진부하잖아.

ㄷ. 결국 좋지 못한 형편에다가 원서비만 날린셈이 된거죠

ㄹ. 마침 제 짝이랑 서먹서먹한 관계에다가 쫌 불량한 아이라 친해지고 싶지도 않았는데

ㅁ. 중국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에다가 자본시장이 외부 충격에 영향을 덜 받는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즉 위 예문에는 접속항들이 같은 문법적 지위에 있지 않다는 것과, 접속항이 체언적인 특성이 없다는 것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추측을 해 보았다. 일단 두 접속항이 같은 문법적 지위를 가지려면 선행 명사구에 계사 '이다'를 붙여야 되는데, 이는 특별한 의미기능이 없으므로 생략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첫 번째 접속항은 명사만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접속항에 '이다'를 붙여 보면 '맨날 똑같은 옷인데', '너무 뻔한 스토리인데' '서먹서먹한 관계인데'가 되는데, 의미적으로 봐도 화자가 상황을 제시하려는 의도와 같다. 따라서 앞의 명사구는 사실 '명사(구)+이다'의 형식에서 생략된 것으로 추정된다.

뒤에서 접속된 절이 체언적 특성이 없다는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는 여기서 접속조사 대신하여 연결어미를 쓰는 것이 더욱 타당하다고 본다. 다시 말하자면 위와 같은 문장들을 문법적으로 가장 적합한 형식으로 바꾸려면 '명사(구)인 데다가+절'이어야 한다. 즉 '결국 좋지 못한 형편에다가 원서비만 날린셈이 된거죠'라는 문장은 실제로 '결국 좋지 못한 형편인 데다가 원서비만 날린셈이 된거죠'라는 문장이다. 선행절에서 계사 '이다'의 생략으로 인하여 표면적으로 접속된 첫 번째 요소가 명사(구)로 인식되어서서 뒤에 접속조사 '에다가'를 사용하게 되었다.

또한, 통사론적으로 조사로 명사구와 절을 연결하는 경우가 특수하고, 의미론적으로 봐도 특별한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의미적으로는 '에다가'로 연결된 두 부분은 각각 하나의 명제를 표현한다. 보통 절로 명제를 표시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 첫 번째 접속항은 특별히 명사구로 하나의 명제의미를 나타낸다. 통사·의미론적으로 '명사구에다가+절'의 형식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와 같은 문장형식이 널리 쓰이기 때문에 관용적 형식으로 받아들여지고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2.2.2. 접속조사 '에'와 결합하는 '다가'의 의미적 기능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기능에 대하여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여러 요소를 '나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열'이라는 개념은 접속조사의 기본적 의미로서, '이나, 이든' 등의 조사로 드러나는 '선택'과 구분하여 여러 개의 명사나 명사

구를 일일이 제시한다는 뜻일 뿐이다. '나열'을 의미하는 접속조사 간에도 세밀한 의미적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에다가'의 의미기능을 자세히 분석해 보기 위하여 다른 '나열'의 조사와의 차이점을 밝혀야 한다.

접속조사 중에 '나열'을 의미하고 자주 쓰이는 것은 '와/과', '하고', '이랑' 등이다. 그런데 이들은 항상 접속조사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아래와 같이, '결혼하다', '닮다' 등의 상호 동사나 대칭 동사와 함께 나타나면 이들은 동반의 의미를 가지는 부사격조사로 처리된다.

(46) ㄱ. 이몽룡은 성춘향과 결혼했다. (구본관 외 2015)
ㄴ. 나는 아버지와 닮았다.

그러나 같은 접속조사인 '에다가'는 동반격 조사로 쓰일 수 없고, '와/과', '하고', '이랑' 등과는 달리 '에다가'로 연결된 두 접속항은 '동반'의 관계도 아니다. 접속조사 '에다가'만의 의미 특성은 기존의 연구에서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김진수(1987)에서 접속조사 '에다가'와 접속조사 '와/과'의 의미기능을 예를 통하여 설명하였다. 아래 예문들이 의미적으로 크게 같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 접속조사가 다르기에 미세한 의미적 차이가 보인다. 김진수(1987)에 의하면 '책과 노트' 그리고 '맥주하고 사이다'는 두 접속항이 연결되고 나서 둘의 관계는 아주 긴밀해져서 하나의 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책에다가 노트'와 같은 '에다가'로 접속된 명사구들은 하나의 쌍이라기고 하기는 어렵다. '책'과 '노트'는 밀접한 관계가 아니고, 한 명사구에 또 다른 명사구를 첨가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르면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기능은 '첨가'이다. 또한 이는 '에'의 본질적인 의미인 '접근'에서 유래된다고 주장하였다.

(47) ㄱ. 책상에 <u>책과 노트가</u> 있다.
ㄴ. 책상에 <u>책에다가 노트에다가</u> 있다.

ㄷ. 맥주하고 사이다를 마셨다.
ㄹ. 맥주에다가 사이다에다가를 마셨다.

이규호(2006)에서는 '나열'을 의미하는 접속조사 중 '에다가'의 의미기능을 좀 더 세분화하여 '예시'와 '첨가' 두 가지로 나누었다. 이규호(2006)에 따르면 첫 번째 예문에서 '에다가'는 여러 개의 명사구를 단순히 제시하려고 하므로 '예시'의 기능이 있다. 그러나 뒤의 문장에서 접속조사 '에다가'는 조사 '하고도'와 마찬가지로 첨가적인 용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 이희자·이종희(1998:173)에서도 '에'는 갇힌 언어 단위 내에서 '첨가'의 뜻으로 쓰인다고 지적하였다.

(48) ㄱ. 중상모략에다가 협박에다가 갖은 짓을 다하더니… (이희자·이종희 1998)
ㄴ. 집안일{에/에다(가)} 회사일이 겹쳐서 정신 없이 바빠요.
ㄷ. 영희는 춥다고 조끼{에/에다(가)} 코트까지 입고 나갔어.
ㄹ. 석 달하고도 열흘
ㅁ. 옛날하고도 아주 먼 옛날

유경화(2013)에서도 접속조사 '에다가'는 '단순 나열'과 '첨가' 두 가지 의미기능이 있다고 하였다. 아래와 같이 각 접속항이 같은 층위에 처하고, 각 명사구의 위치가 자유롭게 바뀌어도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에다가'는 '단순 나열'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 접속항에 '까지'와 같은 보조사를 붙일 때에 명사구 순서의 변화가 문장 전체 의미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하였다. 바뀐 후의 문장에서 '그가 노름판에서 잃었던 것'은 '자기 자식'에 '전 재산'을 더한 것이다. 앞 문장 첨가의 기준은 '재산'이고 바뀐 후에는 '자기 자식'이 된다. 그렇기에 이때의 '에다가'는 단순 나열이 아니라 첨가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다.

(49) ㄱ. 떡에다가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실컷 먹었다.

ㄴ. 떡에다가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실컷 먹었다.
ㄷ. 술에다가 떡에다가 고기에다가 실컷 먹었다.
ㄹ. 그는 노름판에서 재산에다가 자식까지 잃었다.
ㅁ. 그는 노름판에서 자기 자식에다가 전 재산까지 잃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논의를 본 연구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위 예문 중의 보조사 '까지'는 맨 마지막 접속항에 붙어 있고, 그의 작용역도 역시 마지막 접속항에만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접속항의 순서가 바뀌면 보조사 '까지'의 수식 대상도 달라져서 문장 전체의 의미에 영향을 끼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등재된 보조사 '까지'의 두 번째 의항은 '이미 어떤 것이 포함되고 그 위에 더함의 뜻을 나타낸다'이다. 즉 보조사 '까지'는 '추가'라는 의미기능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기에, 문장에서 드러나는 추가적인 의미가 과연 접속조사 '에다가'로 유래된 것인지 보조사 '까지'로 유래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기존 연구에서 접속조사 '에다가'에는 '첨가'의 의미기능이 있다는 점에서 대부분 선행 연구의 의견이 일치한다. 하지만 일부는 이 외에 접속조사 '에다가'가 단순히 접속항을 이어주고 제시하는 기능, 즉 '단순 나열' 혹은 '예시'의 기능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단순 나열'이라는 의미기능은 '에다가'만이 가지는 독특한 기능이 아니라, 모든 접속조사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띤 기능이라고 본다. 황화상(2012)에서 제시된 '선택'의 의미를 지니는 접속조사 '거나', '이든가'와 '이나', 그리고 '나열'을 의미하는 '하고', '이랴'와 '이요'의 예문을 보면, 선택이든 나열이든 접속조사가 여러 개의 접속항을 일일이 제시하고 연결한 후에, 개별적인 기능에 따라 접속항 중에 하나만 선택하든지 모두 포함되는지가 결정된다. 다시 말하면 접속항을 나열하고 연결하는 기능은 접속조사의 통사적 기능으로 생각되고, 조사 '에다가'의 개별적 의미기능에 포함되지는 않는다고 생각된다.

(50) ㄱ. 어제거나 그제거나 다녀왔으면 그만이다.
ㄴ. 오늘이든가 내일이든가 다녀오너라.
ㄷ. 부산이나 서울이나 살기는 마찬가지이다.
ㄹ. 술하고 안주하고 많이 먹었다.
ㅁ. 부산이랴 서울이랴 많이 오르내렸다.
ㅂ. 이 집에는, 담요요 침대요 모두 다 갖추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접속조사 '에다가'는 '추가'의 의미기능만 있다고 본다. 먼저 '에다가'로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시킬 때 같은 기능을 가지는 조사 '하고'와 비교를 해 보자. '하고'는 단순히 세 가지 음식물이 있는 것을 제시하고, '떡, 고기, 술'을 하나로 묶어 이것들이 바로 먹은 대상이라는 사실을 진술한다. 그러나 '에다가'로 접속된 문장에서는 한 가지 음식물 외에 무언가 더 있고, 세 가지 음식물을 추가적으로 일일이 제시한다는 느낌이 더 든다.

(51) ㄱ. 떡하고 고기하고 술하고 실컷 먹었다.
ㄴ. 떡에다가 고기에다가 술에다가 실컷 먹었다.

이보다는 아래처럼 명사구와 절을 연결하는 경우에 '에다가'에 추가적인 의미기능이 더욱 잘 드러난다. (52)에서 제시된 첫 번째 접속항인 '2층이다', '아이 셋이다'와 '무반주이다' 등은 화자가 객관적으로 제시한 배경적 상황이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에다가'를 통해서 뒤의 상황을 더해준다. 비교적 뒤에 오는 접속항을 더 강조하며 기술하는 경향이 있다.

(52) ㄱ. 신감독님이 공격적에다가 깔끔하구 잼나게 축구하는 스탈이라...
ㄴ. 2층에다가 눈이 좋은 편이 아니다보니 무대가 잘 안 보이는 불상사가 발생함.
ㄷ. 아이 셋에다가 일하는 사람도 없으니, 힘이 너무 들었다.
ㄹ. 무반주에다가 지휘도 없이 불러야하며 서로 일렬로 걸어가며 불러

야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작업이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작품의 첫 시작 부분부터 삐끗하는 게 용납이 되는 건 아니다.

위와 조금 다르게 아래 문장의 선행 명사절에서 '안정적인', '뻔한', '좋지 못한' 등 관형어의 사용으로 화자는 자기가 제시한 상황에 대하여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럴 때에는 '에다가'가 뒤에 상황을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것 외에, 화자의 감정적 태도도 같은 방향으로 추가시킬 수 있다.

(53) ㄱ. 안정적인 솜씨에다가 가격도 착한 편이다.
ㄴ. 요즘 드라마, 너무 뻔한 스토리에다가 유치하고 진부하잖아.
ㄷ. 결국 좋지못한 형편에다가 원서비만 날린셈이 된거죠.

다시 말하자면 화자가 첫 번째 접속항 속에 사건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 뒤에 오는 문장에도 화자의 긍정적인 태도가 담겨야 한다. 만약에 (53ㄱ)의 후행 명사구를 '가격은 너무 비싸다'로 바꾸면 문장 전체가 어색해진다. 따라서 '에다가'로 연결되는 두 접속항은 화자의 가치 판단과 같은 방향에 있어야 한다.

2.2.3. 접속조사 '에다가' 용법의 확장

2.2.3.1. 여기/거기(에)다가

한국어에서 현장지시사는 인칭 중심 체계에 따라 '여기/저기/거기' 등이 있다. 이들은 부사격조사 '에'나 '에다가'와 함께 사용할 때에도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나 아래 (54)에서 나온 '여기/거기에다가'는 단순히 처소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54) ㄱ. 소고기 고명이 들어가서인지는 모르지만 감칠맛도 좋다. 거기다가 짠맛도 덜한 편이다.

ㄴ. 그래서 찾아간 곳이 웅장한 흰색 석회암 직벽이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런던 남쪽의 '세븐 시스터스'였습니다. 여기다가 중세시대 영국 평민들의 삶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어.

ㄷ. 항공권 전문 여행사들이 대형 여행사에 비해 항공권 구입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규모의 여행사들과 서로 상생하는 이른바 '윈윈' 전략을 구사하는 셈이다. 여기다가 대형 여행사에서 구하기 어려운 다양한 일정의 항공권을 갖추고 일반 여행자들에게도 항공권을 판매해 인기를 얻고 있다.

ㄹ. 전기가 끊어지고 수돗물 끊어지며 가스가 끊어지면 아파트는 더할 나위 없이 끔찍한 감옥으로 바뀐다. 여기에다가, 쓰레기를 치워 줄 사람이 없으면 무시무시한 쓰레기터 되겠지.

앞에서 본 듯이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형용사 서술어와 공기할 수 없는데, (54ㄱ)에서 '에다가'는 형용사 '덜하다'와 함께 사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54)에서 사용된 '여기/거기'는 현장지시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결합되는 '에다가'도 처소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여기/거기에다가'를 더 큰 문맥에 두고 앞 문장과 함께 이해를 하면, 위의 '에다가'는 '추가'의 뜻을 가지고 있는 접속조사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선행명사는 앞 문장에서 제시한 상황에다가 새로운 상황, 앞에서 화자가 기술한 것에 또 다른 비슷한 것을 추가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자면 (54ㄱ)에서 이런 맛도 좋고, 한 가지 추가한다면 저런 맛도 좋다는 뜻이다. (54ㄷ)의 '여기다가'는 항공권 전문 여행사가 자기만의 우위가 있는 사실에 더해, 소비자에게도 인기를 얻는다는 장점도 추가적으로 설명한다. 따라서 여기의 처소 대명사 '여기'와 '거기'는 실제 처소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앞 문장 전체를 지칭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장지시사가 아니라 문맥지시사로 기능하고 있다.

박진호(2007)에 따르면 문맥지시사란 자신이나 대화 상대방의 앞선 발화에 의해 담화 영역(universe of dicourse)에 이미 확립되어 있는 지시대상(referent)을 가리키는 표현이다. 그리고 현장지시사가 문맥지시사로 전용되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절에서 논의하고 있는 '여기/거기(에)다가'는

문맥지시사 '여기/거기'가 앞의 담화에서 제시된 내용, 즉 지시대상을 가리키고 뒤에 '추가'의 의미기능을 담는 접속조사 '에다가'를 붙여서 앞의 담화 내용에 더 추가되는 상황을 제시해 준다.

박진호(2007)에서는 한국어의 현장지시사 중의 '이' 계열과 '그' 계열만 문맥지시사로 쓸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 '저기'는 문맥지시사로 전용할 수 없는 것이다. 실제 용례에서 '여기/저기/거기'가 '에다가'와 결합하는 용례를 검색해 보면 이 중에서 '저기(에)다가'는 존재하기는 하지만, 출현빈도가 가장 낮고 대부분 용례는 이동의 착점을 제시하고 있다. 문맥지시사로 사용되는 경우는 '여기(에)다가'와 '거기(에)다가'만을 찾을 수 있다. 특히 '거기(에)다가'는 출현빈도도 높고 이를 포함한 용례 중에 '접근'을 의미하는 것은 상대적 작은 비율을 차지한다. 앞의 문장 전체에 무언가를 추가한다는 의미는 '거기(에)다가'의 더 전형적인 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5) ㄱ. 자기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계획적인 이런 아이들을 보면 난 가끔 이 아이들의 뇌는 어떻게 생겼을까 궁금하다. 거기다가 마음씨까지 놀랍도록 착하다.

ㄴ. 그런데 우리나라는 300㎞로 달리는 고속열차에 어떠한 확인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오고 승차하거든요. 거기다가 입석 승객까지 있으니까 이 위험이라는 것은 사실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지요.

ㄷ. 좀처럼 늘지 않는 소득, 빠르게 오르는 물가, 여기에다가 미래 수입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지면서 집집마다 고민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ㄹ. 알고 보면 땅심이 줄어서 나중에는 농약과 비료를 안 쓸 수 없게 되고, 또 농약값과 비료값, 여기에다가 비닐값까지 치면 농사지어서 돈 남기기란 몹시 어려운 일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거기(에)다가'는 위에서 볼 수 있듯이 문중보다는 문두에 더 자주 출현한다. 이들은 이미 문장을 연결해 주는 한 가지의 관용적 표현이나 하나의 접속부사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나타나는 '에다가'도 역시 부사격조사가 아니라 접속조사 '에다가'이다.

2.2.3.2. 연결어미 상당 구성 '-은/는/던 데(에)다가'

문병열(2018)에서는 '관형사형어미+(의존)명사(+조사)'의 형태로 고정되어 결합한 구성을 '연결어미 상당 구성'이라고 정의했다. 채숙희(2002)에서도 위와 유사하게 '-은/는/던 데(에)다가'를 연결어미 '-고'나 '-면서'로 바꿔 쓸 수 있으므로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은/는/던 데(에)다가' 구성은 한국어의 전형적 연결어미는 아니지만, 연결어미와 같은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니, 본 연구에서도 '연결어미 상당 구성'이라고 부른다.

'-은/는/던 데(에)다가'는 관형사형어미와 의존명사 '데'로 선행절을 하나의 명사절로 만들어주고, 접속조사 '에다가'를 통하여 선행절과 후행절을 연결해 준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접속조사 '에다가'는 그 접속대상이 '명사구+명사구'와 '명사구+절'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그런데 '-은/는/던 데'에 후행하는 '에다가'는 세 번째 경우로 '명사절+절'을 연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래 예문에서 보이는 듯이 일부 '-은/는/던 데(에)다가'로 연결된 문장은 접속조사 '에다가'만으로 연결된 것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따라서 연결어미 상당 구성 '-은/는/던 데(에)다가' 중의 접속조사 '에다가'는 역시 전에 논의한 경우와 같이 '추가'의 의미를 담고 있다.

(56) ㄱ. 동물들이 한 번 수영장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기에는 벽이 높은 데다가 디딜 곳도 없다.

ㄱ'. 동물들이 한 번 수영장에 들어가면 밖으로 나오기에는 높은 벽에다가 디딜 곳도 없다.

ㄴ. 30시간 이상 굶은 데다가 음료수도 떨어져서 우의에 고인 물을 받아 마시던 해병대원들은 L 중대원들을 보자 환성을 질렀다.

ㄴ'. 굶은 지 30시간에다가 음료수도 떨어져서 우의에 고인 물을 받아 마시던 해병대원들은 L 중대원들을 보자 환성을 질렀다.

ㄷ. 러닝타임이 짧은 데다가 표현도 상징적이어서 명확하게 영화를 파헤치기는 어렵다.
ㄷ'. 짧은 러닝타임에다가 표현도 상징적이어서 명확하게 영화를 파헤치기는 어렵다.
ㄹ. 아직 배역이 확정되지 않은 데다가 제작비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이 꽤 오래 소요 될 줄 알았는데.
ㄹ'. 아직 확정되지 않은 배역에다가 제작비 문제도 있고 해서 시간이 꽤 오래 소요 될 줄 알았는데.

채숙희(2002)에서는 아래 문장들 통하여 두 사태를 단순히 나열하는 연결어미 '-고'와 '-며'에 비해, '-는 데다가'를 사용하는 경우 두 사태에 점증의 의미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통하여 조사 '에다가'의 의미기능은 '추가'인 것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57) ㄱ. 철수가 노래를 잘하는 데다가 춤도 잘 춘다.
ㄱ'. 철수가 노래를 잘하고/며 춤도 잘 춘다.
ㄴ. 철수가 돈을 잘 버는 데다가 명희도 돈을 잘 번다.
ㄴ'. 철수가 돈을 잘 벌고/며 영희도 돈을 잘 번다.

2.2.3.3. 접속부사 '게다가'

접속부사 '게다가'는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그러한 데다가'를 의미하고, 《연세한국어사전》에 따르면 '그런데다가, 그것에 더하여, 그뿐 아니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형태론적으로 보면 '게다가'는 지시대명사 '거기'와 조사 '에다가'가 합쳐지고 점점 굳어진 것이다.

유효영(2018)에서는 접속부사들은 그들의 꼬리요소로 사용된 접속어미의 기본의미가 쓰이는 경우가 절대적으로 많다고 지적하였다.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접속부사는 그 안에 포함된 어미의 기본의미를 사용하여 형성되었다. '-은/는/던 데다가' 구성은 전형적인 어미가 아니지만, 접속어미적 기능을 가지

고 있다. 따라서 유효영(2018)의 이론에 따른다면 '게다가'도 접속조사 '에다가'의 '추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58) ㄱ. 날씨가 잔뜩 흐렸고 게다가 바람까지 불었다.
ㄴ. 집집마다 담을 높이 올리고 게다가 쇠창살까지 쳤다.
ㄷ. 식당은 값이 비싼 편이었고 게다가 음식 맛도 좋지 않았다.
ㄹ. 인터넷으로 하던 쇼핑을 이제는 손으로 들고다니며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구매할 수 있다. 게다가 많은 쇼핑몰에서는 스마트폰으로 구매를 하게되면 쿠폰도 사용할 수 있는 혜택까지 주고 있다.
ㅁ. 편리한 교통에 생활에 필요하거나 활동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들이 도시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에서 살고 싶어한다. 게다가 문화시설, 교육시설이 잘 되어 있기에 더욱더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는 도시를 선호한다.
ㅂ. 그럼에도 그녀는 그것들을 꿋꿋이 이겨냈다. 게다가 자신을 차별했던 것들, 나아가 자신을 불우하게 만들 뻔 했던 장애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사랑이 있고 또한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연결어미 상당 구성 '-은/는/던 데다가'는 절을 대상으로 삼고 연결해 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접속부사 '에다가'의 연결 대상은 좀 더 다양하다. (58ㄱ-ㄷ)처럼 절일 수도 있고, (58ㄹ-ㅂ)처럼 더욱 큰 문법 단위인 문장이나 담화를 연결할 수도 있다.

2.2.4. 접속조사 '에'와 '에다가'

위에서 보듯이 접속조사 '에'와 '에다가'는 사용양상과 의미적 기능이 거의 동일하다. 그러므로 부사격조사 '에'와 '에다가'보다는 접속조사 '에'와 '에다가'의 차이가 더 적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두 가지 조사 중에 하나만 허용되는 용법이 찾을 수 없었다. 다만 문장에서 '에다가'를 쓰면 더욱 적합한

경우를 찾아냈는데, 이를 통하여 접속조사 '에'와 '에다가'의 섬세한 차이를 밝혀 보도록 한다.

'에'나 '에다가'나 접속조사에 의하여 두 접속항이 연결되는 데에 있어서 아래 예문들이 아주 비슷하고 의미적 차이도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에다가' 구문과 달리, '에'가 사용되는 문장에서만 중의적 의미 해석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

(59) ㄱ. 이렇다할 계획도 없이 훌쩍 떠난 1박 2일의 짧은 시간에 무슨 기억에 남을 유별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ㄴ. 그런 미칠 듯이 절묘한 시기에 무려 한국 출생!!!

ㄷ. 5-6시 쯤에 사람도 별로 없고 어느 정도 먹고 있으려니까

ㄹ. 최소한 2억명 가량이 이동하는 설날에 오는 3월 올 국정의 운영 방향과 대규모 인사개편을 결정지을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회의를 앞두고 있어 사회불안과 정치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ㅁ. 축제 첫날에 공휴일이라 꽃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을 법도 했지만,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날이기도 했고.

ㅂ. 밤도 아니고 오전 11시쯤, 한 창 쨍쨍할 때에 사람도 겁나 많은 학원인데. 별로 겁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음.

(59)에서 나온 문장들의 첫 번째 접속항인 '짧은 시간', '절묘한 시기', '5-6시쯤', '설날', '축제 첫날'과 '쨍쨍할 때'는 모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원래 부사격조사 '에'는 시간적 표현에 후행할 때에 '앞말이 시간의 부사어임을 나타낸다(표준국어대사전).'와 같은 기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에 (59) 중의 조사 '에'는 접속조사로 이해될 수도 있지만, 단순히 시간 부사어를 나타내는 부사격조사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 조사 '에'는 문법범주에 따라 문장에서 수행하는 기능도 그만큼 달라진다.

(59ㄱ)을 예로 들자면, '에'는 부사격조사로 기능할 때에 '1박 2일의 짧은 시간'은 그저 화자가 제시한 시간적 배경이다. 문장에서 부사어로서 기능하고, 통사적으로 보면 삭제해도 전혀 상관없는 성분이다. 그러나 조사 '에'를 접속조사로 본다면, 이때의 '1박 2일의 짧은 시간'은 첫 번째 접속항으로서 뒤에 오는 '무슨 기억에 남을 유별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라는 접속항과 통사

적으로 같은 층위에 처하고 있고 문장의 필수적 성분이기에 삭제될 수 없다. 이때 '짧은 시간'은 시간적 배경이 아니라, 화자가 제시하려는 두 가지 사태 중 하나가 된다.

이와 같은 중의적 해석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 (61)에서 보이는 것처럼 조사 '에' 대신해 '에다가'를 쓰는 방법이 있다.

(60) ㄱ. 이렇다할 계획도 없이 훌쩍 떠난 1박 2일의 짧은 시간에다가 무슨 기억에 남을 유별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ㄴ. 그런 미칠 듯이 절묘한 시기에다가 무려 한국 출생!!!

ㄷ. 5-6시 쯤에다가 사람도 별로 없고 어느 정도 먹고 있으려니까

ㄹ. 축제 첫날에다가 공휴일이라 꽃구경 나온 사람들이 많을 법도 했지만, 징검다리 연휴의 마지막날이기도 했고.

ㅁ. 밤도 아니고 오전 11시쯤, 한 창 쨍쨍할 때에다가 사람도 겁나 많은 학원인데. 별로 겁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음.

앞에서도 언급한 바가 있듯이, 부사격조사 '에다가'는 '접속'과 '추가' 두 가지 의미기능만 가지고 있으므로, 시간적 표현과 공기할 수 없다. 따라서 위에서 보이는 것처럼 (59)의 '에다가'는 접속조사일 수도 있고 부사격조사일 수도 있으나 (60) 중의 '에다가'는 접속조사일 수밖에 없고 문장의 의미 해석도 역시 한 가지뿐이다.

접속조사 '에'는 일부 시간성 표현과 공기할 때 부사격조사로 오해될 수 있다. 이때는 '에다가'를 대신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말뭉치 용례에서도 화자가 '추가'라는 의미를 강조할 때, 특히 접속조사로 절을 연결시킬 때 '에'보다 '에다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에'에 비하여 접속조사 '에다가'는 '추가'적인 의미를 더 명확히 드러낸다고 판단되었다.

3. 조사 '에게/한테'와 결합하는 '다가'

3.1. 조사 '에게/한테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한국어의 대표적인 여격조사인 '한테'와 '에게'는 통사적으로든 의미적으로든 크게 차이가 없다. 다만 조사 '에게'는 주로 문어체에서 자주 쓰이는 반면에, 조사 '한테'는 구어체에서 많이 쓰인다. 이 두 조사의 기능이 아주 유사하기에 앞으로 전개될 논의에서는 조사 '에게'의 경우만 대표로 제시한다. 조사 '에게다가'와 '한테다가'에 앞서서, 여격조사 '에게'와 '한테'의 사용양상 및 통사·의미적 기능을 먼저 보도록 한다.

조사 '에게'의 통사 및 의미적 기능에 대한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이미 많이 다루어 왔다(김형정 2009, 정해권 2012, 양소열·구본관 2018 등). 본 연구는 주로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린 세 가지 의미기능과 김형정(2009)의 주장을 종합하여 조사 '에게'의 의미기능을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 번째는 어떤 행동이 미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기능이고, 두 번째로는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낼 수도 있다. 세 번째 의미기능은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고, 네 번째로는 지각의 주체를 나타낸다. 마지막으로는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기능이 있다.

그러나 《연세한국어사전》에서 여격조사 '에게', '한테'와 보조사 '다가'를 결합된 격조사 '에게다가', '한테다가'를 찾아보면, 둘은 하나의 의미기능, 즉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낸다'라는 의미기능만 등재되어 있다. 이는 조사 '에게'와 '한테'의 경우와는 크게 다르다. 과연 사전에서 기술된 것처럼 여격조사들에 보조사 '다가'를 붙이면 의미적 기능도 많이 사라지는가에 대하여, 말뭉치 용례를 가지고 고찰해 보도록 한다.

<1> 행동이 미치는 대상

부사격조사 '에게/한테'가 가장 많이 쓰이는 용법은 바로 이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보조사 '다가'를 붙인 '에게/한테다가'의 용례에서도 이러한 용법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다. 아래 예문에서 보이듯이 '에게/한테다가'의 선행명사는 보통 행위주의 행동이나 말에 영향을 미친다. 이때의 동사는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첫 번째 경우와 비슷하게,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대부분이다.

(1) ㄱ. 설령 속시원한 일이 있다기로 오빠에게다 거짓말을 한단 말예요.
ㄴ. 마침 아이들이 찾아와서 나에게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고 있어요.
ㄷ. 기생들이 손님에게다가 나이를 속이는 것은 예삽니다.
ㄹ. 그러구 아빠한테다 뽀뽀를 쪽 해주면 돼.
ㅁ. 나는 공항 직원한테다가 여권을 내놓으며 절을 넙죽 했다.
ㅂ. 그놈이 네 처한테다가두 연애편지를 해댔대며?

<2>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

두 번째 경우는 '에게/한테다가'의 선행명사가 행동을 일으키는 행위주인 경우이다. 동사는 여전히 이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동의 방향은 <1>과 반대로 선행명사에서 행동을 미치는 대상 쪽으로 움직인다. 아래 (2)에서 제시된 문장들이 바로 이러한 용법에 해당된 용례들이다.

(2) ㄱ. 먹을 때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맛있는 두부는 안주도둑들에게다 뺏겼어요.
ㄴ.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이걸 받아들고 대통령에게다 결정을 받는 겁니다.
ㄷ. 횡설수설하는 척하면서, 김명진이한테다 뒤집어 씌운다.
ㄹ. 충분히 소비자들한테다 칭찬을 받습니다.
ㅁ. 평론가라는 놈이 시대 꼰데들에게다 들은 얘기 왜 영화로 만들어야 했냐고.

(2)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때는 '에게/한테다가'가 출발점을 제시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서, '에게서'나 '한테서'로 대체할 수 있다. (2ㄹ)을 예로 들자면, 이동의 주체인 '칭찬'은 '소비자'로부터 출발해서 착점을 향하여 이동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행명사인 '소비자'는 이러한 이동을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2>에서는 조사 '에게/한테다가'가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을 제시한다.

하지만 위에서 본 <1> 용법인 '행동을 미치는 대상'보다 <2>의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을 나타내는 용법은 수용성이 어느 정도 떨어진다. 일부 모어화자는 (2)의 예문은 아주 어색하거나 아예 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러한 용법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특히 '빼앗기다, 받다, 듣다' 등의 동사와 함께 사용되는 용례가 많이 발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사 '에게/한테다가'는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을 제시하는 의미적 기능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3> 판단의 기준

세 번째 의미기능은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는 전에 논의한 비유적 표현에서 쓰인 '에다가'와 유사하게 하나의 기준치를 세우고 그 기준치를 착점으로 삼는다. 예컨대 (3ㄱ, ㄴ)에서는 착점에 리듬을 맞추거나 비교를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에 비하다'라는 표현은 조사 '에'가 포함된 관용적 표현이기에 '에다가 비하다'로 대체할 수 없으나, (3ㄷ)에서 보듯이 '한테 비하다'는 뒤에 보조사를 붙여도 된다.

(3) ㄱ. 산이, 나무가, 꽃이 자신을 구부려뜨려 영희에게다 리듬을 맞췄다.
ㄴ. 자기 세계를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작가들, 시인들을 바로 집 짓는 사람에게다 비교할 수 있습니다.
ㄷ. 태영인 나한테다 비하면 너무 훌륭해.

<4> 지각의 주체

보통 심리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고 사람의 심리적 태도를 드러내는 '에게/한테'는 '지각의 주체'를 나타낸다고 규정되어 있다. 말뭉치에서 이와 같은 용법을 찾아보니, '한테다가'가 포함된 용례에서 적합한 문장을 찾지 못하였다. '에게다가'가 심리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는 예문으로 아래 (4)와 같이 두 개만을 발견하였다.

(4) ㄱ. ?이러한 연유로 등산은 체질 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다 좋으나, 사상체질중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에게는 더욱 좋은 운동이다.

ㄴ. ?말이 좋아서 세월의 흔적이지 주름은 누구에게다 싫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검토해 보니 이 두 문장에서의 '에게다'는 모두 적절하게 사용된 예가 아니다. (4ㄱ)에서의 '모든 사람에게다' 중의 '다'는 띄어쓰기를 놓친 부사 '다'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그리고 (4ㄴ)의 경우 뒤에 3.3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 중의 '에게다'는 조사 '에게'가 '선택을 가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와 결합된 '에게나'의 오용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지각의 주체'를 나타내는 '에게/한테다가'는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ㄱ. 이러한 연유로 등산은 체질불문하고 모든 사람에게 다 좋으나, 사상체질중에서 태음인과 소양인에게는 더욱 좋은 운동이다.

ㄴ. 말이 좋아서 세월의 흔적이지 주름은 누구에게나 싫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5>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

《표준국어대사전》에서 부사격조사 '에게'에 대하여 첫 번째로 등재되어 있

는 의항은 바로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이다. 이는 보통 '누구에게 무엇이 있다/없다'나 '누구에게 무엇이 생긴다'의 문형으로 나타나고, 결과적으로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긴 문장들이다. 그러나 말뭉치에서 검색해 보니 해당 의미를 가지는 '에게/한테다가'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의 의미를 가지는 '에게'의 예문 (5ㄱ, ㄴ)을 가지고 조사 '에게' 뒤에 보조사 '다가'를 붙여서 (5ㄷ, ㄹ)로 만들어 보았다. '다가'를 붙인 후의 두 문장은 비문으로 봐도 될 만큼 많이 어색해진다. 따라서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나타내는 조사 '에게'를 '다가'와 결합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알 수 있다.

(5) ㄱ. 철수에게 돈이 많다.
ㄴ. 영희에게 무슨 일이 생겼을까?
ㄷ. *철수에게다가 돈이 많다.
ㄹ. *영희에게다가 무슨 일이 생겼을까?

<1>~<5>에서 제시된 예문들을 통하여 조사 '에게'와 '한테'의 다섯 가지 의미기능 중에서는 '행동이 미치는 대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과 '판단의 기준'을 나타내는 문장에서 여격조사 뒤에 '다가'가 올 수 있음을 알았다. 이외에 '지각의 주체'와 '일정하게 제한된 범위'를 표시하는 여격조사 뒤에 '다가'를 붙이는 경우는 발견할 수 없었다. 조사 '에게/한테다가'가 이 두 용법에 아예 적용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에게/한테다가'의 전형적인 의미기능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에게/한테다가'와 '에게/한테' 의미기능상의 차이는 보조사 '다가'의 기본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사격조사 '에다가' 중의 '다가'는 주로 '접근'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 즉 방향성을 지니는 표현과 함께 쓰일 때에 착점을 향한 이동을 나타낸다. 이를 보조사 '다가'의 기본적인 의미로 추정해 본다. 일단 보조사 '다가'가 방향성을 표현하는 부사격조사 '에', '에게/한테'와 '로'에만 붙을 수 있다는 점은, '다가'의 기본적 의미가 '접근'인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로 제시될 수 있을 듯하다.

본 장에서 살펴본 '다가'와 결합되는 조사 '에게'와 '한테'는 부사격조사 '에'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앞서 언급한 '에게/한테'의 다섯 가지 의미기능 중 '행동이 미치는 대상', '행동이 일으키는 대상'과 '판단의 기준' 이 세 가지 경우에 이동이나 방향성의 의미가 어느 정도 담겨 있다. 이에 따라 뒤에 '다가'를 붙일 수 있다. 그 외에 '일전하게 제한된 위치'와 '지각의 주체'를 의미할 때는 '다가'의 기본적 의미인 '접근'과 적합하지 않아서 문장에서 '에게/한테다가'를 사용하기 힘들게 된다. 그러나 '에게/한테다가'의 의미기능 중에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의 경우에는, 선행명사를 향한 이동이나 접근이 아니라 오히려 점점 멀어지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에게/한테다가' 중의 '다가'는 그 기본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에다가'만큼은 엄밀하게 준수하지 않을 경우도 있고, '다가'의 의미가 점점 약화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뒤에 4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조사 '로다가' 중의 '다가'도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가 더욱 적어지고, 거의 '강조'의 의미만 남아 있다.

존경하는 대상이 부사어일 때에 여격조사 '에게'를 대신하여 '께'를 사용한다. 부사 '에게'의 높임 표현인 '께' 뒤에도 보조사 '다가'를 붙일 수 있다. 물론, 조사 '에게다가'의 사용빈도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 그의 높임 표현인 '께다가'는 더 잘 보이지 않는다. 사람마다 직관에 따라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도 다르다.

(6) ㄱ. <u>스님께다가</u> 시주 많이 하시오. (시주받기 가사)

ㄴ. 그래서 <u>담당자분께다가</u> 청소년상담사는 어떻게 취득하냐고 문의를 해보시고는 저에게 추천해주셨죠.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요약하자면 여격을 표시해 주는 부사격조사 '에게다가'와 '한테다가'는 유정물인 선행명사에 후행하고 '행동이 미치는 대상', '행동이 일으키는 대상'과 '판단의 기준'의 세 가지 의미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3.2. 조사 '에게/한테다가'의 '다가'의 의미적 기능

3.2.1. 보조사 '다가'의 '강조' 의미

본절에서는 보조사 '다가'가 어떠한 의미적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부사격조사 '에게다가'와 '한테다가'는 '에다가'보다 출현 빈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기존 연구도 비교적 적은 편이다. 보통 보조사 '다가'나 '다가'를 포함하는 조사에 대한 연구에 포함되어 있고, 이 두 조사에만 집중하는 연구는 찾기 어렵다. 보조사 '다가'의 의미에 있어서 선행연구에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첫 번째 주장은 보조사 '다가'가 수의적으로 부사격조사에 붙는 요소이므로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이다(김문웅 1982, 유경화 2014). 김문웅(1982)에 따르면 '다가'는 삭제해도 되고, 때로는 아래 (7)과 같이 명사구 사이에서 이행(移行)을 해도 문맥상 의미의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 이 때문에 보조사 '다가'는 '한테다가'뿐만 아니라 '로다가'처럼 다른 조사와 붙을 때에도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하였다.

(7) ㄱ. 그는 <u>나한테다가</u> 약속을 내일로 미루자고 제의해 왔다.
ㄴ. 그는 나한테 약속을 <u>내일로다가</u> 미루자고 제의해 왔다.

또한 최윤(2016), 전후민(2014) 장회견(2015) 등을 비롯한 다른 연구자들은 '에게다가'와 '한테다가' 중의 '다가'는 강조의 의미기능만을 가지고 있고, 앞 조사의 의미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고 지적하였다. 《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한테다가'의 뜻풀이 '행동이 미치는 대상을 강조하여 드러냄'에서도 '강조'라는 의미적 기능을 제시하였다. 이외에도 이태영(1988)에서는 화용론적인 관점을 취하며 보조사 '다가'가 담화의 초점을 표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어 강조법에 대한 연구는 잘 이루어져 있다. 권재일(1987), 임성규(1989) 등에서 한국어에서 쓰이는 여러 가지 강조법을 제시하였고, 강조 기능을 가지는 보조사에 집중적으로 논의한 연구로도 최련(2015)과 강주은(2020) 등이 있다.

본 연구는 문장에서 나타나는 모든 언어 요소는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고 본다. 아무리 수의적인 요소라도, 통사적으로나 의미적으로나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해당 언어 요소에 어휘적 의미가 없어서 문맥적 의미도 없다고 하기는 어렵다. 이현희(2013)에 따르면 특히 '강조'는 정보 전달이 목적이 아니라 표현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강조'를 나타내는 요소는 어휘적 의미보다 문맥적 의미가 더 중요하다. 한국어에서 자주 사용되는 보조사 '은/는'으로 예를 들자면, (8)에서 '은/는'이 삭제되어도 문장의 의미에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나 보조사 '은/는'은 '대조'의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화자가 '는'을 통하여 과일가게 외에 다른 가게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를 함의시킬 수 있다. 또한 '은/는'은 '강조'의 의미기능도 있으므로, 화자가 '과일가게'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쓰일 수도 있다. 따라서 '은/는'처럼 삭제될 수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다.

(8) ㄱ. 그 곳에 과일가게는 없다. (최련 2015)
ㄴ. 그 곳에 과일가게 없다.

보조사 '다가'도 위와 마찬가지로 수의적인 요소라는 근거만으로 의미적 기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본 연구는 보조사 '다가'는 기본적 의미 외에 '강조'의 의미가 있다는 견해에 동의하면서 자세하게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에게/한테다가'에서 보조사 '다가'의 '강조' 기능을 실제 용례를 가지고 자세히 보도록 한다.

말뭉치에서는 여격조사 '에게/한테' 뒤에 '대고'를 붙이는 '에게/한테다가 대고'의 형식이 자주 나타난다. 이러한 용법은 《표준국어대사전》에 아래와 같이, '어떤 것을 목표로 삼거나 향하다'라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다.

(9) ㄱ. <u>하늘에 대고</u> 하소연을 했다.
ㄴ. 아이들이 <u>나무에 대고</u> 돌을 던지고 있다.
ㄷ. 어머니는 <u>아들에게 대고</u> 그동안의 불만을 한꺼번에 내쏟았다. (표준국

어대사전)

말뭉치에서 '에게 대고'와, 뒤에 보조사 '다가'를 붙인 '에게다가 대고'를 추출해 보면, '에게'가 있을 때 뒤에 '대고'가 나타나는 빈도가 '에게다가'가 있을 때 뒤에 '대고'가 나타나는 빈도보다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에게/한테다가'의 모습으로 사용되는 용례가 있기는 한데하지만 아주 적게 나타난다. 따라서 '에게/한테다 대고'를 좀 더 전형적인 형태로 정하기로 한다. 이러한 형식을 통하여 보조사 '다가'의 '강조' 의미를 보도록 한다.

(10) ㄱ. 의사는 서 영감에게다 대고 충동질을 한다.

ㄴ. 그 기술의 유효성이 보장되는 범주랄까 수준이 어느 단계여야 하는가를 선생 스스로에게다 대고 묻고, 어쩌면 원고지 사용이 그 단계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었던 셈 아닙니까.

ㄷ. 나는 죽은 그에게다 대고 뭐라고라도 한대목 욕을 해주고 싶었다.

ㄹ. 그러자 이해찬 기획본부장이 후보에게다 대고 “저런 성질머리로는 대통령이 돼도 문제다”라고 쏘아붙였다.

ㅁ. 강경 발언만 쏟아내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또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미국한테다 대고 제발 여기선 전쟁은 안 된다.

ㅂ. 저한테다 대고 아~ 담을 수 없는 욕을 한다는 것이 아~ 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싶으니까 제 마음이 오히려 편해졌어요.

ㅅ. 그토록 무섭기만 하던 경찰 아저씨들한테다 대고 내가 어떻게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나도 모를 일입니다.

ㅇ. 그렇게 사랑스러운 개라지만, 사람한테다 대고 '개처럼 생기셨다' 하면! 그 순간 욕이 돼버립니다.

ㅈ. 윤희는 아이한테다 대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ㅊ. 윤 직원 영감은 딸더러 하는 소리는 소리지만 온 집안 식구들한테다 대고 나무람을 하던 것입니다.

위 (10)의 '에게/한테다 대고'는 이미 굳어진 표현이므로, 화자는 '다가'의 의미기능과 '대고'의 의미기능을 따로 인식하지 않고 하나의 관용적 표현으로 쓰게 된다. 따라서 그 의미적 기능을 알아보기 힘들다. 일단 문장에서 '다 대고'를 제거해도 문장의 명제적인 의미에는 아무 영향도 없는 것으로 느껴진다. 왕단(2019)에서는 보조사가 문장에서 삭제될 때 문장의 의미가 변하지 않으면 해당 보조사의 기능을 강조로 본다고 하였다. 이를 보조사뿐만 아니라 다른 구성 요소로 확장시키면, '에게/한테다 대고'도 강조의 의미만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음운론적으로 보면 '에게/한테' 뒤에 휴지가 없는 일부 문장에 '다 대고'를 붙이고 나서 휴지가 생길 수 있다.

(11) ㄱ. 윤희는 아이한테 버럭 소리를 지른다.
ㄴ. 윤희는 아이한테다 대고 버럭 소리를 지른다.
ㄷ. 그 기술의 유효성이 보장되는 범주랄까 수준이 어느 단계여야 하는가를 선생 스스로에게 묻고, 어쩌면 원고지 사용이 그 단계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었던 셈 아닙니까.
ㄹ. 그 기술의 유효성이 보장되는 범주랄까 수준이 어느 단계여야 하는가를 선생 스스로에게다 대고 묻고, 어쩌면 원고지 사용이 그 단계라고 스스로 대답하고 있었던 셈 아닙니까.

(11ㄱ)에서는 원래 휴지를 넣지 않아도 되는데, (11ㄴ)처럼 '다 대고'를 삽입한 후에는 '아이한테다 대고' 뒤에 휴지가 생겼다. 보통 휴지를 넣는 것도 한 가지의 강조법이라고 본다. 따라서 여기서 '에게/한테다 대고'는 통사론, 음운론적으로 강조의 효과를 일으킨다고 볼 수 있다. '에게/한테다가 대고' 구성 전체가 강조의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으니 '다가'도 같은 기능이 있다고 추정된다.

3.2.2. 보조사 '다가'의 강조 양상

허동진(2006)에 따르면 보조사 '다가'는 앞에 조사의 의미를 더욱 뚜렷이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일부 학자는 보조사 '다가'의 결합대상은 앞에 선행하는 격조사이기 때문에 '다가'의 강조 대상도 당연히 격조사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보조사의 작용역이 그의 결합대상과 반드시 같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된다. 최련(2015)에서 보조사 '도'는 세 가지 강조 양상이 있다고 제시하였다. '아직도', '잘도'처럼 부사에 후행할 때에 그 부사를 강조하는데 '빨리도 달린다'나 '맛도 없다'에서는 그의 결합대상인 '빨리'와 '맛'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감탄'과 '실망' 등 감정양태를 강조하기도 한다. 다음으로 '에게/한테다가' 중 '다가'의 강조양상을 살펴보기로 한다.

<1> 대상을 강조

최윤(2006)에서는 '에게다가' 중의 '다가'는 주로 대상을 강조하는 기능을 한다고 지적하였다. '에게/한테'는 원래 대상을 제시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들과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를 조사의 의미에 더해주면 바로 대상을 강조하게 된다. 이때의 강조 보조사 '다가'의 작용역은 앞의 조사, 즉 '에게/한테'에 있다.

(12) ㄱ. 거기에서 인제, 할머니가 하나 빨래를 하고 있는데 <u>그 할머니한테다가</u> 내가 가는 방향을 반대 방향으로 가리켜 줘라.
ㄴ. 감히 내 이름을 <u>개한테다</u> 갖다 붙여?
ㄷ. 말 없는 인형이 무슨 죄라구 왜 <u>인형한테다</u> 화풀이야!
ㄹ. 어떻게 함부로 남의 전화번호를 알지도 <u>못하는 사람한테다</u> 막 주구 그래요.
ㅁ. 그리고 사고(思考)를 <u>자기 자신에게다</u> 집중해 보라.
ㅂ. 먹을 때마다 착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하게 하는 맛있는 두부는 <u>안주도둑들에게다</u> 뺏겼어요.
ㅅ. 그래서 여성혐오는 여자고 남자고 <u>우리 사회 모두에게다</u> 통용되는 어떤 지금 현재의 문화 현재의 잘못된 문화인데

ㅇ. 그러나 나의 처지를 나보담 못한 사람에게다 견주어볼 때에 나는 완연히 딴사람이 되었다.

(12)에서 '에게/한테다가'의 선행명사는 화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정보이기에, '다가'를 통하여 이러한 정보를 한층 더 강조시켰다. (12ㄱ)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방향을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려 주기 위하여 '그 할머니한테다가'의 형식으로 대상을 강조한다. (12ㄴ)에서 자기의 이름을 붙이기 못마땅하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그 대상이 개이기 때문이다.

<2> 접근을 강조

최련(2015)에서는 '나/이나, 도, 만, 야/이야, 은/는' 다섯 개의 보조사를 추출하여 강조 보조사라는 이름을 붙이고, 그들의 결합양상과 강조 양상을 살폈다. 이 5개 보조사 중에서는 '강조'를 기본적인 의미로 가지고 있는 보조사 '야/이야'를 제외하면, 다른 강조 보조사들은 다른 기본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강조'는 그 부차적 의미로 기능하고 있다. 최련(2015)에서 제시된 것으로 예를 들자면, '만'의 기본적인 의미는 '유일함'이기에 (13ㄱ)에서의 '만'은 '강조'의 의미를 수행할 때에도 '유일한 한정'을 강조하고 있다. 보조사 '은/는'의 기본적인 의미기능은 '대조'이기 때문에 (13ㄴ)처럼 문장에서 '집에서'를 강조하는 동시에 '대조'의 의미도 가진다. 즉 꼬마가 다른 곳이 아니라 집이라는 장소에서 잘 논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3) ㄱ. 그는 그저 웃고만 있었다. (최련 2015)
ㄴ. 꼬마가 집에서는 잘 논다.

따라서 '이야/야'처럼 '강조'를 기본적 의미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강조 보조사의 '강조' 의미는 기본적 의미에서 발달해 왔다. 기본적인 의미와 어

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는 점은 보조사 '다가'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에게/한테다가' 중의 보조사 '다가'의 기본적인 의미는 '접근'이므로, 이는 '접근'이나 '이동'을 강조하는 경우가 있는 듯하다.

보조사 '다가'가 '접근'의 의미를 강조할 때 그 결합대상은 여전히 '에게/한테'이지만, 그 작용역은 앞의 조사뿐만 아니라 '선행명사+조사' 전체이다. (14ㄱ) 중의 '네가 감히 사람한테다 돌을 던져?'라는 문장에서 '다가'는 '사람한테'를 강조한다고 생각된다. 즉 돌이 사람을 향하여 접근하는 것이 화자를 놀라게 했다. '나에게다 몸을 밀착시켜왔다'에서의 보조사 '다'도 마찬가지로 밀착하는 대상인 '나'만 강조하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가까워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14) ㄱ. 네가 감히 사람한테다 돌을 던져?
ㄴ. 그러한 나의 내심도 모르고 그녀는 나에게다 몸을 밀착시켜왔다.
ㄷ. 배우한테다가 테이프를 턱턱 붙여 가지고, 배우의 움직임이 3D로 바로 구현되도록 하는 인간 움직임의 기계화라고 하면 좋겠다.
ㄹ. 민연기가 자기 아이들에게다가 말뚝 같은 시선을 꽂았다.
ㅁ. 여자의 아들은 휠체어에서 미끄러져 버둥거리는 채로 모두 각자의 눈빛으로 아버지에게다 깊은 사연들을 말하고 있었다.
ㅂ. 어딘가에다가 두어야만 하는 시선을 앞의 두 남자에게다가 던지고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된 보조사 '다가'의 강조 양상의 차이는 완전히 '다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 문장의 서술어와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접근'을 강조하는 예문에서 나타난 서술어인 '던지다', '밀착시키다'나 '꽂다' 등은 이동이나 접근의 의미를 담고 있어서, '접근'이라는 의미는 문장 전체 의미에도 기여한다. 반면에 '대상'을 강조할 때 문장의 서술어인 '집중하다', '견주하다'나 '화풀이다' 등은 이동의 의미가 비교적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보조사 '다가'의 강조 양상의 차이를 제시하려는 것이지, 이러한 차이점이 온전히 보조사 '다가'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다.

또한, 본 절에서는 '다가'가 '에게/한테' 뒤에서 나타날 때 '다가'의 강조 대상은 앞에 명사일 수도 있고 '명사+에게/한테' 전체일 수도 있다고 보았다. 이는 '다가'와 앞에 조사 '에게/한테'는 아직 하나로 굳어지지 않는다는 증거로 생각될 수 있다. '에게/한테다가'가 하나의 문법요소로 인식되면, 그중의 일부인 '다가'의 의미기능은 다른 문장성분에 따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에게/한테다가'는 '에다가'에 비하여 문법화가 덜 이루어진 조사연속구성으로 보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3. 조사 '에게/한테다가' 용법의 확장

위에서 살펴본 모든 '한테다가'와 '에게다가'의 용법 중에서 보조사 '다가'는 그저 '강조'라는 기능만 하고, 자기만의 특별한 의미가 없어 보였다. 그러나 아래에서 제시된 문장에서 나온 '다가' 경우는 위와 조금 다르다. 아래 문장들은 모두 '누구에게다'와 '누구한테다'가 포함되어 있다. 문맥에서 드러내는 의미를 보면, 대명사 '누구'는 부정칭이고, '누구에게다'나 '누구한테다'가 문장에서 수행하는 의미는 '누구를 선택하여도 상관없다'는 것이다. 이때는 보조사 '다'를 모두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보조사 '나'로 대체해도 의미적으로는 전혀 상관없다. 앞의 '한테다가'와 '에게다가' 중의 '다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론과는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의문이 생길 수 있다.

(15) ㄱ. 지도는 시민 <u>누구에게다/나</u> 무료로 배포된다.

ㄴ. 시간은 <u>누구에게다/나</u> 똑같이 흐르니 좀 더 쪼개서 잘 써보자!!!

ㄷ. "<u>누구에게다/나</u> 다 같은 상황이고, 누구도 기득권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ㄹ. 이번에도 역시 당내에서는 <u>누구에게다/나</u> 공정한 기회를 주고 누구에게나 여러가지 토론의 기회라든가 자기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줘가면서 정말 공정한 경선을 치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ㅁ. 말이 좋아서 세월의 흔적이지 주름은 누구에게다/나 싫을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ㅂ. 누구한테다/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야.

ㅅ. 딸기는 누구한테다/나 다 맛있는 과일 아닌가.

ㅇ. 캡슐로 누구한테다/나 똑같이 처방되는 다이어트약이 아닌 진정한 맞춤형 캡슐 다이어트이기 때문에 당원만의 효력은 모방하지는 못합니다.

ㅈ. 아로마향이 누구한테다/나 거부감 없이 다가갈수 있는 향이에요

위 문장에서는 보조사 '다'와 보조사 '나'가 같은 의미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 외에는 보조사 '다'가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위 문장에서 쓰인 '누구한테다'와 '누구에게다'는 한국어 모어 화자에게도 개인의 직관에 따라서 수용성도 다르다. 다만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그렇기에 아래와 같은 추측을 해 보았다. 일단 검퓨터에 입력할 때에 자음 'ㄷ'과 'ㄴ'의 위치적 접근으로 인하여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다'와 '나' 발음상의 유사성도 둘을 혼용하게 되는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즉 보조사 '다'는 '여러 가지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여도 상관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기보다는, 오타로 인하여 '나'를 잘못 입력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4. 조사 '로'와 결합하는 '다가'

4.1. 조사 '로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

다음으로 '에다가'만큼은 사용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중세한국어 시기부터 나타나고 현대한국어에서도 보이는 부사격조사 '로다가', 그리고 '로다가'에서 보조사 '다가'의 의미기능을 검토해 보려고 한다.

부사격조사 '로'는 언어생활에서 고빈도로 사용되는 조사로, 그 의미기능도 상당히 많은 편이다. '로'가 포함되어 있는 관용적 표현을 제외하고, 《연세한국어사전》에서 등재된 것을 기반으로 정리한 부사격조사 '로'의 의미기능은 '방향, 지향점', '방식, 양상', '재료, 도구, 수단, 방법', '변화, 변성', '자격, 신분, 명성', '판단', '원인, 이유'와 '시간' 등 총 8가지가 있다. 이희자·이종희(1998)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것 외에도, '...로 고르다', '...로 선택하다' 등의 형식으로 나타날 때에 '선택'의 의미기능을 가지고, 설명 또는 제시하는 말에서 주로 '...는 ...로'의 문형으로 사용되면 '...인 바'나 '...인데'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연세한국어사전》과 이희자·이종희(1998)를 종합하여 본고에서는 부사격조사 '로'의 의미기능에는 '방향, 지향점', '방식, 양상', '재료, 도구, 수단, 방법', '변화, 변성', '자격, 신분, 명성', '판단', '선택', '원인, 이유', '시간' 그리고 '계사 활용형과 교체 가능한 용법' 총 10가지가 있다고 보았다. 이어서 '로'의 10가지 의미기능을 '로다가'도 똑같이 수행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겠다.

<1> 방향, 지향점

'방향, 지향점'이라는 기능은 처격조사로서 조사 '로'의 가장 기본적 의미기능이다. 이 분류 안에는 이동 대상이 경과하는 통로를 나타내는 의미기능도 포함되어 있다. 조사 '로다가'는 (1ㄱ)과 (1ㄴ)에서 보이듯이 조사 '로'와 마찬

가지로 같은 '방향, 지향점'이라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ㄱ. 우리가 편한 대로 계속 레드라인을 뒤로다가 무르는 거면 그것은 레드라인이 아니지요.
ㄴ.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통화를 하게하고 한 사람은 학교로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수업 중인 게 확인이 되었죠.
ㄷ. ?오히려 재수 옴붙었다는 표정으로 뭐를 씹은 듯한 얼굴로 내가 있는 쪽으로다가 오는 것이 보였다.
ㄹ. ?한동안 거실에 앉아 마음을 삭이던 나는 이윽고 그가 준 테이프가 궁금해져 비디오 앞으로다가 앉았다.
ㅁ. ?감시병들이 우리 쪽으로다가 오는데 어쩌죠?

그러나 용례 (1ㄷ, ㄹ, ㅁ)에서는 '지향점, 방향'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기서 사용되는 '로다가'는 조사 '로'와 동사의 활용형인 '다가'가 인접해서 잘못 띄어 쓴 결과로 봐야 한다. 말뭉치에서는 이러한 경우가 많이 발견된다. 오용된 용례를 제외하고 나면, '로다가'로 '방향'이나 '지향점'을 나타내는 용례가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 방식, 양상

두 번째 의미기능은 어떤 일의 방식이나 양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로다가'의 용례에서 이러한 기능은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을 가지고'와 '로써'와 교체 가능한 경우가 많다. 아래 문장에서 (2ㄷ)에서의 구입하는 가격, (2ㅂ)에서 약속을 주고받는 형식 등은 모두 '로다가'로 표현될 수 있다.

(2) ㄱ. 그래서 어떤 식으로다가 본인의 이런 오해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지 의견이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세요.
ㄴ. 결론적으로다가 먹을 만한, 덕소 와부읍까지 찾아갈 만한 해장국이었어요.
ㄷ. 싱글과 더블 셋트로 구입했는데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구입할 수 있었답니다.

ㄹ. dvd 검색은 안되는 것 같은데 할수없이 다운로드로다가 봐야겠어요.
ㅁ.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참석하고 있는 의원들이 어저께 회의를 통해서 탈퇴하기로다가 결의를 했습니다.
ㅂ. 그건 확약을 받아야 되니까 Exchange of Letter를 하고 서면으로다가 약속을 주고받아야 되겠죠.
ㅅ. 하지만 모든 후회와 반성은 이 짧은 생을 더 재밌고 낭만적으로다가 살기 위함이겠죠

위 (2)에서 보이는 듯이 '방식, 양상'을 나타낼 때에 '-적으로다가'의 형태로 많이 사용된다. 또한 이는 문장에서 (2ㅅ)처럼 뒤의 서술어를 수식하는 성분부사어로 사용될 수도 있고, (2ㄴ)처럼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문장부사어일 수도 있다.

<3> 재료, 도구, 수단, 방법

세 번째 의미기능은 주로 어떤 행위의 도구, 수단이나 방법을 나타내거나 어떤 물건의 원료나 재료를 의미할 때에 쓰인다. 조사 '로'가 적용된 용례를 많이 찾을 수 있고, '로다가'도 대개 적용될 수 있다.

(3) ㄱ.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님, 저의 말을 믿지 않으시는 그런 말씀으로다가 계속 저를 꾸짖어 주셔서 제가 반성을 많이 하는 기회를 갖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ㄴ. 주워온 귤상자 남은 걸로다가 울타리를 만들어봤어요.
ㄷ. 그런데 저희는 이날 와인으로다가 원래 분위기 있는 곳에서는 분위기 좀 잡아줘야죠.
ㄹ. 향수는 또 너무 꾸민 느낌이니까 바디 미스트로다가 은은함을 품고 갔다죠!
ㅁ. 오늘은 주말에 먹고 남은 치킨으로다가 치킨마요덮밥을 해묵었어유.

<4> 변화, 변성

네 번째 의미기능은 주로 모양이나 상태의 변화가 생긴 대상을 나타내는 것이다. '변하다, 바꾸다' 등 서술어와 함께 사용되고, 변화 전의 것을 제시하는 '...에서 ...로'의 문형도 많이 보인다. 말뭉치 자료에서 '로다가'의 용례를 찾을 수 있으나, 출현 빈도가 높지 않다.

(4) ㄱ. 콘센트에 선이 채 닿지가 않아 다른 놈으로다가 바꿔야 할 듯.
ㄴ. 테이블도 전문가의 손길 담은 것으로다가 바꾸고파요
ㄷ. 조합이야 항상 물건있는 놈으로다가 달라질 듯한데 아예 다양하니 취향에 맞는 것 골라먹기 좋다.
ㄹ. 투표시간 24시간으로다가 늘려도 마찬가지.

<5> 자격, 신분, 명성

'로다가'는 자격, 신분이나 명성을 나타낼 때에 쓰이기도 한다. 조사 '로서'와 같은 의미기능을 하기에 서로 교체가 가능하다. (5ㄴ)에서 나오는 서술어 '자임하다'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동사라서 '로다가'와의 결합이 자연스럽다. 외에는 서술어 '삼다, 태어나다' 등도 자주 함께 나타난다.

(5) ㄱ. 그러면 지금 200건도 안 되는 것 가지고 7000억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건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 안 받고 200개를 신규로다가 편입시켜 주겠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ㄴ. 이게 정부기관이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집행기관이 아니라 대통령 홍보 나팔수로다가 자임하고 있는 거예요.
ㄷ. 주말커플 한지 2달쯤 지났을까. 같이 광주에 와서 제가 첫월급 받은 기념과 함께 여자친구 취직 선물로다가 가방도 사줬고, 옷도 사줬고, 구두도 사줬고, 여자친구가 사달라고 졸랐죠.
ㄹ. 개 키우고 싶다!! 반려견으로다가...

<6> 판단

'판단'은 화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드러낼 때에 자주 사용이 되는 의미기능이다. '로다가'의 선행명사는 화자 판단의 결과나 판단의 대상임을 나타낸다. 보통 동사 '여기다, 보이다, 간주, 치다' 등과 함께 나타난다.

(6) ㄱ. 미도 난 보기만 좋구만 저 어깨가 어때서? 그놈은 어좁이가 분명 해. 여자친구로 부담스런거지. 야 최성윤 괜찮아. 어깨넓은 놈으로다가 우리가 알아볼게.
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국정원은 개혁돼 야할 대상으로다가 보인다.
ㄷ. 절대 허락 안할 것으로다가 보인다.
ㄹ. 요즘 지역 유선방송으로다가 티비들을 보는 걸로다가 아는데.

<7> 선택

화자가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한 결과를 나타낼 때에 '로다가'가 쓰일 수 있다. 서술어 '고르다, 선택하다' 등과 자주 공기하고한다. (7ㄹ)에서 보이는 '젓가락짓 하다'와 같은 서술어는 자체로는 선택의 의미가 없지만, 문맥에서 화자가 선택하는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에 '로다가'가 적용될 수 있다.

(7) ㄱ. 적당히 형, 아우 먹어가면서 살아갈 만한 놈으로다가 골라보자고.
ㄴ. 그리고 방음매트는 열한번째 골목에서 가격 적당하고 상품평 적당한 놈으로다가 주문했습니다!
ㄷ. 새우구이가 나오고 또띠아로 싸서 먹을 수 있는 메뉴로다가 선택.
ㄹ. 탄 부분없이 깔끔하게 구워내어 주셨더라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신다 잘 익은 놈으로다가 한젓가락 하고.

<8> 원인, 이유

'로다가'의 여덟 번째 의미기능은 원인이나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다. '로 인하여', '때문에'나 '탓으로' 등을 대체할 수 있다. 이러한 용법은 조사 '로다가'의 용례에서 고빈도로 사용되고 있고 '생각으로다가', '관계로다가'와 '문제로다

가' 등의 표현도 많이 나온다.

(8) ㄱ. 저는 들은 전언으로다가 상당히 능력은 있다고 보는데 또 하나는 관운이라는 게 저는 지난 정부 때 청문회 이렇게 해 보잖아요?
ㄴ. 침대를 벽에 붙이지 않고 양쪽으로 협탁을 놓아보는 게 소원 아닌 소원이었지만 당장 협탁이 없는 관계로다가 창가에 있던 슬림테이블을 놓아주었어요.
ㄷ. 회장님이 나랏 분들 헌티 불법으로다가 자금을 살포한 혐의를 조사하다.
ㄹ. 이런건 신랑이 해줘야하는데, 성격이 급한 죄로다가 땀을 한바가지 흘려가며 달았다.
ㅁ. 처음은 완충했는데도 간헐적으로 꺼져버리는 문제였고 이번에는 전원 껐는데도 led가 계속 켜져 있는 문제로다가 교체받았습니다.
ㅂ. 1년동안 다락방님 덕분으로다가 참 즐거웠습니다.

<9> 시간

아홉 번째 의미기능은 지정된 시간을 나타내거나 시간 구간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간을 나타내는 원래 조사 '로'의 전형적인 용법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빈도도 높지 않다. '로다가'도 마찬가지로 용례를 찾을 수 있지만 많지 않다고 할 수 있다.

(9) ㄱ. 아이고, 수고 많으시네요. 밤낮으로다가.
ㄴ. 제가 이번에 좀 최근간으로다가 마구 사댄거여서말이죠
ㄷ. 그래서 밥풀 붙은 콩을 내가 다 묵었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다가. 그 기간 동안 내가 먹은 콩이 한 가마니는 될 거야.
ㄹ. 저녁으로다가. 게세끼탕 먹었더니 속이 든든하네.

<10> '이다'의 활용형과 교체 가능한 용법

마지막으로 예문 (10ㄱ)과 (10ㄴ)의 조사 '로'는 계사 '이다'의 활용형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나 이때의 '로'를 '로다가'로 바꾸면 (10ㄱ')와 (10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문장이 비문이 된다.

(10) ㄱ.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로, 고대 유적이 많이 있어서 관광 수입이 주된 경제적인 수입의 원천이다.
ㄱ'. *그리스는 지중해 연안의 국가로다가, 고대 유적이 많이 있어서 관광 수입이 주된 경제적인 수입의 원천이다.
ㄴ.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장군으로,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다.
ㄴ'.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장군으로다가,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다.

(10ㄴ)을 계사 '이다'로 대체해 보면 '이순신은 조선시대의 장군인데, 임진왜란 때 큰 공을 세웠다'라는 문장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이때의 조사 '로'는 '인데'와 같이, 배경상황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럴 때는 '로' 뒤에 보조사 '다가'를 붙이면 문장이 비문이 된다. 역시 말뭉치에서도 계사 '이다'의 활용형과 교체할 수 있는 조사 '로다가'의 용례는 발견되지 않는다.

위에서 본 용례를 통하여 부사격조사 '로'의 열 가지 의미기능 중에서 조사 '로다가'는 아홉 가지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사 '로다가'와 '로'의 의미적 기능은 상당히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 완전히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는, 같은 용법을 가지는 '로'와 '로다가'에도 사용빈도상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일단 조사 '로'는 방향성을 나타내는 것을 가장 기본적인 의미기능으로 삼기 때문에, '로'의 용례 중에서 '방향성,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이 가장 많다. 이에 비하여 조사 '로다가'는 '방향성, 지향점'을 의미하는 경우가 훨씬 적다. 대신에 '방식, 양상'과 '원인, 이유'를 드러내는 용례가 더 많이 보인다. 따라서 조사 '로'와 '로다가'는 같은 의미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각 용법의 사용빈도에 차이가 존재한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보조사 '다가'의 가장 기본적 의미는 '접근'으로 보인다. '에다가'의 모든 용법에는 '접근'의 의미가 포함되고, '에게/한테다가'의 용례 중 대부분은 '접근'과 관련이 있었다. 그러나 '로다가'의 의미기능 중에서 '방향', '변화'와 '판단'은 '접근'과 의미적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나머

지는 '다가'의 기본 의미에서 많이 벗어났다. 지금까지 본 '에다가', '에게/한테다가'와 '로다가'에서 '로다가' 중의 '다가'가 의미 탈색이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이다.

4.2. 조사 '로다가'의 '다가'의 의미적 기능

4.2.1. 보조사 '다가'의 '강조'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연세한국어사전》과 《고려대한국어사전에서》 중에서 '로다가'를 실은 사전은 《연세한국어사전》 하나뿐이다. 이 사전에는 '로다가'가 '로'의 의미를 강조함을 나타낸다'는 조사로 등재되어 있고, 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다'의 어간 뒤에 쓰이거나 옛말투처럼 쓰인다. 예문은 아래와 같이 제시된다.

(10) ㄱ. 그 사람이 간첩 <u>혐의로다가</u> 붙들렸단다.
ㄴ. 도로교통법 <u>위반으로다가</u> 딱지를 떼면 벌금이 제법 나올걸.
ㄷ. 그 <u>찬물로다가</u> 어떡헐려구 그러우?

두 번째 용법은 "로'와 '다가'가 결합하여 쓰이는 말'이라고 하고, 구체적인 예문은 제시되지 않는다. 위와 같은 예문이 몇 개 제시되어 있으나, 사전에서 기술된 내용만에 의하면 조사 '로다가'의 사용양상과 의미기능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렵다.

기존 연구에서 '로다가'에 관한 내용은 '에게/한테다가'만큼 많지 않고, 위에 제시한 '에게/한테다가' 중 '다가'의 의미기능에 대한 견해와 아주 유사하다. 주로 '다가'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견해나 '강조의 기능을 한다'는 견해다. 이와 조금 다르게 이태영(1988)에서는 '로다가'의 '다가'는 수단을 나타낸다는 주장을 제시하였다. 세 번째 주장인 '수단'은 '로다가'의 여덟 가지 용법 중에 한 가지에만 적합하기에 '다가'의 의미기능으로 보기 힘들고, '의미가 없다'라

는 주장도 3장에서 논의했듯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로다가' 중의 '다가'의 의미기능은 '강조'라고 생각된다.

권재일(1987)에서는 문장 구성성분의 순서를 바꾸는 것은 한국어 강조법 중에서 통사적인 방법이라고 지적하였다. 화자가 이와 같이 '로다가'가 포함된 부사어를 문말에 두는 방식으로 강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로다가'가 문말에 나타나는 경우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11)처럼 문장 맨 뒤에 오는 서술어가 생략되면서 '로다가' 부사어가 문장의 마지막 위치에 처하게 되는 경우이다.

(11) ㄱ. 후식은 지난번에 저렴하게 샀던 참외로다가 (하기로 한다).
ㄴ. 돈은 많이 필요 없고, 근무시간 길지 않고, 주말에 쉬는 걸로다가 (결정했다).
ㄷ. 기앙 정부 보조로 까까주기로 해쓰믄 절반 아니지 몽땅 공짜로 해주게따...단 정부가 그돈을 보조 해주는 조껀으로다가 (한다).
ㄹ. 열어보지도 않지만 제목도 너무 지겨우려고 그러니까 제목이라도 좀 신선한 걸로다가 (바꿔야겠다).
ㅁ. 물론 자유민주주이 하는 나라답게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어디까지나 무죄 추정으로다가 (한다).

(11)에 나온 문장들은 필자의 이해대로 생략된 서술어를 괄호 안에 보충했다. 이럴 때에 화자가 문말에 놓인 '선행명사+로다가'를 강조한 것일 수도 있고, 서술어를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단순히 서술어를 생략한 것일 수도 있다.

'로다가'가 문말에 쓰이는 두 번째 경우는 화자가 일부러 어순을 바꿔서 '로다가'를 포함한 부사어를 문말에 두거나, '로다가' 부사어로 따로 문장을 만들어서 앞 문장에 추가적 설명을 붙인 것이다.

(12) ㄱ. 저도 일년에 한번 보거든요 무료로다가.
ㄴ. 월요일, 금요일에 3연전씩 끊어서 리뷰하는 식으로다가.

ㄷ. 개 키우고 싶다!! 반려견으로다가...
ㄹ. 저는 지름'신'보다는 개인적으로 뱀파이어가 되고 싶습니다만. 이왕이면 에드워드한테 물리는 쪽으로다가.
ㅁ. 하지만 자라나는 애들은가난하자에게 학비 면제해주는 것조차 부끄러워하고 상처받는다. 가난한 부모 잘못만난 죄로다가.
ㅂ. 표 차이가 하도 많이 날것 같으니 뭐~~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수준으로다가.
ㅅ. 박정희가 반신반인이라니일제의 신기술을 나라를 팔아서들여온 공로(?)가 있는 이완용도 반신반인 대접해야죠. 논리적으로다가...
ㅇ. 아 저기 작년에 갔었어요. 수학 여행으로다가.

(12)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럴 때에는 화자가 '로다가' 부사어를 강조하는 의도가 잘 드러난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문장을 정상적인 어순인 '저도 일년에 한번 무료로다가 보거든요.'로 바꾸면 화자가 보는 방식, 즉 무료라는 중요한 정보를 강조하는 효과가 많이 떨어진다.

물론 보조사 '다가' 없이 문말에 '로' 부사어만 놓아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문말에 '다가'를 붙인 문장을 상당히 많이 볼 수 있다. 이를 통하여 강조의 효과를 한층 더 강화시킨다.

4.2.2. 보조사 '다가'의 강조 양상

앞에서 살펴본 '에게/한테다가' 중 보조사 '다가'의 강조양상과 마찬가지로, '로다가' 중의 '다가'도 강조하는 대상, 즉 작용역이 조금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다음으로 보조사 '다가'가 앞의 조사 '로'를 강조하는 경우, '선행명사+로' 전체를 강조하는 경우, 화자의 감정 양태를 강조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사 '로'를 강조

강조 보조사 '다가'의 작용역이 앞의 조사, 즉 부사격조사 '로'에 있을 때에 '로'의 의미기능을 한층 더 강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로'가 '수단, 도구, 방법' 등을 나타낼 때에 뒤의 '다가'는 해당 내용을 강조한다.

(13) ㄱ. 어제 제가 이 두 눈으로다가 똑똑히 봤다.
ㄴ. 해설 형보는 짐짓 보라는 듯 아이를 한 손으로다가 등덜미 옷자락을 움켜, 고양이 새끼 다루듯 쳐들고 섰다.
ㄷ. 자네 말대로, 내가 비상한 머리로다가 검사장이 됐어야 자네같은 인간꼴 안보고 사는 건데, 나도 그게 한이다!
ㄹ. 우리가 그동안 너무 말로다가만 싸우니까 판가름이 안나는 거셔!
ㅁ. 인간 세계에 이런 범죄가 함부로 생겨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다가 난쏘공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ㅂ. 순수하게 민간인으로다가 형님들을 돕겄다.
ㅅ. 경대수 위원 그런데 정부에서, 각 부처나 이런 데서 대응책을 세우는 게 앞으로 해킹을 안 당하는 쪽의 방향으로다가 노력을 많이 해요.
ㅇ. 이래가지고 한 사람은 계속 통화를 하게하고 한 사람은 학교로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연락을 하니까 수업 중인 게 확인이 되었죠.

(13ㄹ)에서는 화자가 싸우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수단이 '말' 한 가지뿐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말' 뒤에 부사격조사 '로'를 먼저 첨가하고 그 다음에 강조의 의미기능을 가지는 보조사 '다가'와 '만'을 순서대로 붙였다. 부사격조사 '로'가 (13ㅂ)에서 제시된 것처럼 '자격, 신분'을 나타내면 뒤에 '다가'는 그 신분인 '민간인'을 강조하고, (13ㅇ)에서 '로'가 '지향점'을 표시할 때 '다가'는 해당 지향점인 '학교'를 강조한다.

<2> '선행명사+로'를 강조

위에서 본 강조 보조사 '다가'는 조사 '로'의 의미기능을 강조하는 것보다 '선행명사+로' 전체를 강조할 때, 아래 (14)에서 보이는 것처럼 부사격조사 '

로'의 의미기능을 덜 명확히 드러낸다.

(14) ㄱ. 어떤 일을 할 건지 구체적으로다가 토론 합시다.
ㄴ. 언제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다가 이런 실무자들한테 영향을 계속 줘야만 된다.
ㄷ. 결과적으로다가 전남편이랑 동거하고 유부남이랑 사귄 건..맞잖아.
ㄹ. 우선적으로다가 분위기 깨져서 안되겠습니다.
ㅁ. 다들 공통적으로다가 정신건강이 약하시거나 마음의 상처도 많고 사연이 있는 분들입니다.
ㅂ. 그러니까 강제로다가 땅을 수용하려고 하는 측에 대해서 내려오지 마라, 아니면 다른 데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ㅅ. 장로님도 잘 아시겠지만젊은 사람이 욕심도 없고 사치도 안허고 일편단심, 그저 일편단심으로다가 학원 집 지어서 나갈라고 지난 가을부터 이 돼지 새끼도 안 키웠남요.
ㅇ. 일본에 처음으로다가 불교를 전파한 것이 백제라는 것 잘 아실 겁니다이.

위에서 '도구, 방법'이나 '방향, 지향점'을 나타내는 의미적 기능과 달리, 여기서의 부사격조사 '로'는 실질적인 의미보다 원래 형용사나 명사인 것을 부사어로 만들어 주는 통사적 기능이 더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적으로다가'의 형태로 나타나는 예를 흔히 찾을 수 있다. 이때 '다가'는 앞의 부사어 전체를 강조한다. 그리고 아래서 살펴볼 세 번째 경우와는 다르게, 이때의 'NP로다가'는 적어도 명제 내부의 요소와 관련이 있는 것이다.

<3> 화자의 감정 양태를 강조

강조 보조사 '다가'의 작용역은 앞의 조사나 부사어일 뿐만 아니라, 문장에서 기술된 명제에서 벗어나서 화자의 명제에 대한 감정적 태도, 즉 화자의 감정 양태일 수도 있다. 아래 (15)는 바로 이러한 경우의 예이다.

(15) ㄱ. 날이 참으로다가 칼칼한 계절입니다.

ㄴ. 화합 대통합 해가 함께 하는거 보니 참으로다가 흐뭇하다.
ㄷ. 안철수의 선택은 참으로다가 잘한 선택이었다.
ㄹ. 정말로다가 위대한 결단을 한것 우리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ㅁ. 둘이 정말로다가 귀엽습니다.
ㅂ. 정말로다가 처음에는 조용조용 가벼운 얘기하려고 했다.
ㅅ. 실제로다가 두 시장이 합쳐졌을 때 누가 이익이냐면 우리가 이익이 거든요.
ㅇ. 실제로다가 그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영향이지만 아까 저기서도 통계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는 문화 자체가 지금 상품입니다.

(15)에서 볼 수 있듯이 '참', '정말'과 '실제' 등 부사 뒤에 '로'를 붙일 때에 조사 '로'는 실질적 의미를 첨부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의미적으로 다소 잉여적인 느낌이 든다. 이희자・이종희(1998)에서는 '시간', '순서'와 '방식, 양상'을 나타내는 일부 표현에서 조사 '로'가 강조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며, 이를 특별히 부사격조사와 따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다. (15)에서는 조사 '로'가 없어도 부사 하나만으로도 문장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다. 이럴 때는 보조사 '다가'뿐 아니라 조사 '로'도 강조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로' 뒤에 '다가'를 붙이면 강조의 효과를 더 확대하게 된다. (15ㄱ)으로 예를 들자면, 화자는 '칼칼한 계절이다'라는 명제에 대한 자기의 확실함을 제대로 표현하기 위하여, 진실을 드러내는 부사 '참'에, 부사격조사 '로'에, 강조 보조사 '다가'까지 사용하였다. 위에서 제시된 진실성 부사 외에, 아래 (16)에서 보이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16) ㄱ. 객관적으로다가 누가 낫겠냐? 누가 해야 서울 아파트 공구리값좀 떨궈주겠냐?
ㄴ. 이론상으로다가 이해한다고 해도 문제로 풀어보면 틀리는 부분이 대부분이더라고요.
ㄷ. 개인적으로다가 집안 전자제품, IT기기들이 삼성, LG 모두 소유하고 있는 중립적인 유저인데 말이죠.

김은지(1998)에서는 이와 같은 'NP로다가'는 문장 안 어떤 성분을 수식하거나 어떤 성분과 연관되지 않고, 화자의 명제에 대한 주관적인 태도를 드러낸다고 지적하였다. (15)에서 제시된 진실성 부사 외에도, (16)에 나온 '객관적으로다가', '이론상으로다가'와 '개인적으로다가' 등도 화자의 주관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상으로 '에게/한테다가'와 마찬가지로 '로다가' 중 '다가'의 작용역을 앞의 조사, 부사어 전체와 화자의 감정 양태 3가지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만약 '로'와 '다가'가 하나로 합쳐져 굳어진 것이었다면, '다가'가 따로 자기만의 작용역을 가질 수는 없다. 따라서 조사 '로'와 '다가'는 아직 두 개의 문법요소로 각자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조사 '로다가' 용법의 확장

4.3.1. 조사가 아닌 '로' 뒤에 쓰인 '다가'

전에도 언급한 바가 있으나 보조사 '다가'의 결합대상은 아주 제한적이고, 연결어미 '-어' 외에는 조사 뒤에만 출현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모든 '로다가'는 모두 조사 '로'와 보조사 '다가'가 결합한 형식이다. 그러나 실제 용례를 살펴보니 부사격조사가 아닌, 심지어 현대한국어에서 하나의 형태소로 인정하기 어려운 '로' 뒤에 '다가'를 붙이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예들은 모두 조사 '로다가' 용법의 확장이라고 생각된다.

가장 대표적인 예는 바로 현대한국어에서 의존명사와 조사로 기능하고 있는 '대로' 뒤에 '다가'를 붙인 경우이다. (17ㄱ, ㄴ)에서는 의존명사 '대로' 뒤에 '다가'가 와서, '-는 대로다가'의 형태로 나타난다. (17ㄷ~ㅂ)처럼 체언 뒤에 조사로서 나타나는 '대로'도 '다가'와 결합한 용례를 볼 수 있다. '대로' 전체는 하나의 조사로 간주되나, 이중의 '로'는 따로 분석되지 않기 때문에 '다가'의 보편적 사용 환경과 일치하지 않는다.

(17) ㄱ. 당신 내키는 대로다가 이거 집어서 고소하고 저거 집어서 고소하면 안 돼.
ㄴ. 공직자는 영혼이 음씨 시키는 대로다가 따라가 해야대는 것.
ㄷ. 현재 진행 하고 인는 한미 무역 상항 그대로다가 나아 가는 거실뿐이다.
ㄹ. 나가 현장에 이써뜨라카믄 사시를 사실대로다가 학씨리 발케줄낀데
ㅁ. 말또 안대는특껌 주장 말고 순리대로다가 대텅 뜻 따라가 순종 복종하고 사라라.
ㅂ. 사실을 사실대로다가 말한 문 창극을 비난 하는 시키드른 소이 사대부 후손 수구 꼴통 보수 빨겡이 를 미어 하는 시키들 일꺼시다

의존명사와 조사 '대로' 외에도 아래 (18)에서 제시된 것처럼, 부사로 쓰이는 '서로', '바로'와 '제대로' 뒤에도 보조사 '다가'가 나타나고, 각각 '바로다가', '서로다가', '제대로다가'의 형태로 출현한다.

(18) ㄱ. 국정원은 철쩌히 감시 사찰 감찰 수사 해가 나라를 똑바로다가 세아야 할꺼시다.
ㄴ. 진짜 성의 있고 좋은 조언과 말씀해주시는 분 있으시면 바로다가 채택해드립니다!
ㄷ. 진실을 하나 일낀데 서로다가 비난 맞고소 를 해대이
ㄹ. 이웃간에 서로다가 인간적인 정을 주고 받으며 서로 소통하고 웃음꽃이 피는 정감있는 이웃이 될 수 업나.
ㅁ. 그것은 셈법이 같으면서도 서로다가 달랐다는 것을 방 방증하는 것이죠.
ㅂ. 또 지금 슈퍼 예산을 지금 제대로다가 풀지도 않고 있는데 그건 너무 하고
ㅅ. 사람은 한번 제대로다가 굶어봐야 합니다.
ㅇ.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소위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사강 중에서 지금 과연 우리나라 편을 제대로다가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냐?
ㅈ. 뭐 지금 박근혜 탄핵 사태 이후에 여러 가지 뭐 솔직한 얘기로다가 뭐 단 한 사람도 제대로다가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위에서 제시된 것 외에 '그야말로다가', '스스로다가', '대대로다가'와 '억지로다가' 등 부사로 굳어진 형태 뒤에 보조사 '다가'를 붙인 예도 많이 발견되었다.

물론 통시적으로 보면 의존명사나 조사 '대로' 중의 '로'는 조사 '로'에서 유래된다는 관점이 가장 일반적이다(박부자 2007). 하지만 현대한국어에 와서 '대로'를 비롯하여 '제대로', '바로', '서로' 등은 이미 하나의 형태소로 굳어졌고 하나의 단어로 인식되기 때문에, 보조사 '다가'의 출현 환경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장대로라면 이를 '로다가'의 확장 용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일부 연구자의 관점에 따르면 앞에서 살펴본 화자의 주관적 태도를 드러낼 수 있는 '다가'의 경우, 즉 '정말로다가', '진짜로다가'와 '참으로다가' 중 '다가'의 결합 대상인 '정말로', '진짜로'와 '참으로' 등도 하나의 부사로 점점 굳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가'가 전형적인 조사와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부사 전체에 붙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본 조사가 아닌 '로' 뒤에 쓰인 '다가'는 조사 '로' 뒤에 쓰이는 것과 같이, 삭제해도 문장의 의미에 무방하다. 이에 여기서의 '다가'도 강조의 의미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원래 부사격조사 '로'에만 붙을 수 있는 보조사 '다가'는 부사격조사 '로'가 아닌 '대로', '제대로', '바로'와 '서로' 등의 뒤에도 확장되어 쓰인다. 이것으로 볼 때, 보조사 '다가'는 기본적 의미인 '접근'은 거의 잃어버리고, 지금은 강조 보조사로 기능한다고 할 수 있다.

4.3.2. 중복을 회피하기 위한 '로다가'

아래 문장에서 보이듯이 일부 문장에서 화자가 여러 항목을 나열할 때에 같은 의미기능을 가지는 조사 '로'를 연속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19) ㄱ. 그 캄캄하고 칠흘같은 어두움 터널을 앞이 안 보이지만 <u>손으로 발로</u>

더듬더듬 만져 가며 느껴 가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힘든 발자국 한보 한 바 전진할수록 터널의 끝과 점점 가까워지는 건 확실합니다.

ㄴ. 그 돈으로다가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가버려따.

ㄷ. 생전에 좋은 마음을 많이 배양하면 재생하는 데 도움이 되며 그래서 좋게 태어나서 다음 생에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건강한 삶은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ㄹ. 아파트 들어가는 동네면 하나 빠지지 않고 싹 다 돌아다니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습니다.

ㅁ. 다만 몸을 마음으로 설명하고, 정신은 영혼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19ㄱ)의 '손으로 발로'에서는 조사 '로'가 '도구'를 나타내고 (19ㄴ)에서는 '방향', (19ㄷ)에서는 '방식, 양상'을 표시하는 '로'를 여러 번을 사용한다. (19ㄹ)과 (19ㅁ)에서도 화자가 운율적인 리듬을 추구하기 위하여 같은 의미가 담긴 조사 '로'를 반복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화자가 나열의 형식이나 운율적인 리듬을 추구하려고 일부러 같은 조사 '로'를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만약에 한 문장 내부에 인접한 어절에서 반복으로 나타난 조사 '로'의 의미기능이 서로 다르다면, '로'의 연속 사용은 중복된 느낌이 들 수 있다.

(20) ㄱ. 고기 먹은 후 식사는 역시 선육후면으로다가 냉면으로 먹었다

ㄴ. 라팔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술과 가까웠던 프랑스 그 특유의 감성을 잘 살려서인지 태생적으로 잘생긴 기체이고, 타이푼은 프랑스의 구식 미라지 기종을 롤모델로다가 짝퉁형으로 만든 듯한 어설프고 어색한 외형입니다.

ㄷ. 지금 같으면 맛폰으로다가 풀 hd로 찍어서 신고해버릴 텐데..

ㄹ. 암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로다가 차선책으로 포드 커피를 생각했는데요.

ㅁ. 그돈으로다가 바다로 산으로 계곡으로 피서를 가버려따.

ㅂ. 마지막으로다가 인간적으로 그럴줄 몰랐는데...

ㅅ. 실찔쩍으로다가 표로 나오는건 그 거에 반에반도 안댈끼다.
ㅇ. 양당 모두 후보 내지말고 박원순 추대로다가 무투표 당선으로 끈내라.

따라서 실제 용례에서는 (20)처럼 조사 '로'를 두 번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 앞에 오는 '로'에 '다가'를 붙이고, '...로다가...로'의 형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보인다. 이때의 '다가'는 강조의 기능도 물론 있기는 하나, 여기서는 같은 요소 '로'의 중복 사용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기능하기도 한다.

5. 결론

지금까지 조사 '에다가', '에게/한테다가'와 '로다가'의 통사·의미적 기능을 살펴보고, 각 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도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는 부사격조사 '에다가'의 통사적 기능에 따라서 먼저 조사 '에다가'를 부사격조사와 접속조사로 나누고 각자의 용법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부사격조사 '에다가'와 공기하는 서술어는 의미기능에 따라서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 '창조 동사'와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로 분류되었다. '이동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나 '창조 동사'와 함께 쓰이는 '에다가' 중의 '다가'는 '접근'의 의미적 기능을 가지며, '추가의 의미를 가지는 동사'와 쓰이는 '에다가' 중의 '다가'는 '추가'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이 두 가지 의미기능 중에서 '접근'이 '다가'의 기본적 의미로 생각되었다. 기본적 용법 외에 '시점을 향한 이동'과 '상태의 유지'와 같은 '에다가'의 확장된 용법도 함께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사격조사 '에'와의 비교를 통하여 '에다가'로 제시되는 착점은 분명한 경계가 있어야 하고, 대상이 도달할 수 있는지 명확히 판단 가능한 지점이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어서 접속부사로 기능하는 조사 '에다가'는 접속조사 '에'와 비슷한 통사적 기능을 가지고 있고, 둘의 사용양상도 전적으로 같다고 보았다. '에다가'로 연결된 각 접속항의 통사적 특성에 따라, 명사구와 명사구를 연결하는 경우, 명사구와 절을 연결하는 경우를 따로 살펴보았다. 그후에 접속조사 '에다가'의 의미기능은 '추가'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이어서 접속조사 '에다가'에서 확장된 몇 가지 용법을 검토했다. 문맥지시사로 전용되는 '여기/저기다가', 연결어미 상당 구성인 '은/는/던 데다가'와 부사 '게다가'도 '에다가'의 의미기능과 관련이 없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에서 부사격조사 '에'와 접속조사 '에'가 동시에 나타날 때, 접속조사 '에다가'의 사용으로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고, 또한 '에다가'가 '추가'적인 의미를 더 잘 드러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제3장에서는 주로 여격조사와 '다가'가 결합한 '에게/한테다가'의 사용양상과 통사·의미적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고, 이중의 보조사 '다가'가 수행하는 의미적 기능을 살펴보았다. 여격조사 '에게/한테'는 다섯 가지 의미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그 중 '행동이 미치는 대상',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과 '판단의 기준' 세 가지를 수행할 때에만 뒤에 '다가'를 붙일 수 있음을 알아냈다. 이는 '다가'의 기본적 의미인 '접근'과 관련된다고 추정되었다. 즉 '에다가' 중의 '다가'보다는 '에게/한테다가' 중의 '다가'가 기본적인 의미인 '접근'을 가지고 있어 이동이나 방향성과 관련되는 용법에는 '다가'를 더 잘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을 나타낼 때에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의 '다가'는 '접근'의 의미가 어느 정도 약화된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그 다음에는 '에게/한테다가' 중의 '다가'의 의미기능은 어휘적인 의미가 아닌 '강조'인 것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면서 작용역에 따라서 '다가'의 두 가지 강조양상, 즉 '대상 강조'와 '접근 강조'를 일일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사 '에게/한테다가'의 용례에서 발견된 특수한 경우가 오용인지 확장된 표현인지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다.

제4장에서는 보조사 '다가'가 조사 '로'와 결합된 '로다가'의 사용양상과 통사·의미적 기능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조사 '로'는 '방향, 지향점'을 나타낼 때 '로다가'의 사용 빈도가 비교적 낮았고, 계사 '이다'와 교체 가능할 경우 '로다가'로 전혀 대체될 수 없었다. 이외에는 '로'가 사용되는 대부분 환경에서 '로다가'도 적용 가능하므로 둘의 사용양상이 아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로'는 '로다가'로 대체할 수 없고, 둘의 의미별의 사용빈도도 다르다. 따라서 '로다가'와 '로'의 사용환경이 거의 같으나, 주된 의미기능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조사 '로다가'에서 보조사 '다가'는 제3장에서 다룬 것과 같이, '강조'의 의미기능을 수행한다고 보았다. '다가'의 강조 대상은 앞의 조사 '로'와 '선행명사+로'뿐만 아니라, 화자의 감정양태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부사격조사가 아닌 '로' 뒤에 '다가'를 붙여서 '제대로다가', '대로다가'나 '서로다가'처럼 사용되는 용례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 내부에서 조사 '로'의 반복 사용을 회피하기 위한 '로다가'의 확장된 용법으로 제시하였다.

2-4장에서 논의된 보조사 '다가'의 의미적 기능에 관한 내용을 요약하자면, 조사와 결합하는 보조사 '다가'는 기본적인 의미가 '접근'이고, 이외에는 부사격조사나 접속조사 '에'와 결합할 때에 '추가'의 의미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격조사 '에게/한테'와 결합할 때에 '접근'의 의미가 조금 남아 있으나, 이때 '다가'의 주된 의미기능은 '강조'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다가'의 작용역에 따라서 강조의 대상이 다르기도 하다. 조사 '로'와 결합할 때에 보조사 '다가'는 '접근'의 의미가 거의 완전히 사라지고 '강조'의 기능만 수행한다.

본 연구에도 많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공시적인 연구 방법을 취하여 현대한국어에서 사용되는 '다가'만을 다루었다. '다가'의 통시적인 변화 관정을 미처 언급하지 못하였다. '다가'에 대한 통시적인 논의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전후민(2014)에서는 15세기부터 '에 다가'와 '을/를 다가'라는 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들은 18세기에 와서 점점 조사로서의 성격이 굳어진다. 이 중에서 '을/를다가'는 18세기까지 활발하게 쓰였으나 그 이후 자료에서 발견되지 않는다(장회견 2015). 그러나 조사 '에다가'는 현대한국어에서까지도 활발히 나타나고 있다. '에게 다가'의 형식은 16세기가 되어야 비로소 나타나고, 17, 18세기 문헌 자료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20세기 이후에야 '에게/한테다가'라는 새로운 형태가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고 '여격 강조'라는 의미기능을 수행하였다(장회견 2015). 이외에도 최윤(2016)에서는 조사 '에다가'와 '로다가'는 '을/를다가'로부터 유래되나, '에게/한테다가'는 '에다가'로 제시된 처소의 개념이 확장되어 대상까지 가리키게 되어서 형성된 것이라고 주장한 바가 있다. 조사 '에다가'와 같이, '로 다가'라는 구성도 15세기부터 출현하고 18세기에 와서 조사적인 성격을 가지게 되었는데, 전후민(2014)에서는 19세기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로다가'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이후 심지어 현대한국어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는 계속 사용되어 왔다고 추정하였다.

또는, 본 연구는 조사 '에', '에게/한테'와 '로'에 붙는 보조사 '다가'만을 검토대상으로 삼았다는 한계가 있다. 연결어미 '-어'와 결합하는 '다가'도 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 논의하지 못하였다. 어미와 결합하는 '다가'

에 대한 논의를 추가하고, 조사와 결합하는 '다가'와 비교하면 더욱 풍성한 논의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미진한 부분을 향후 연구에서 보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Ⅰ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국어사전편찬실(2009),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2002), 『연세 한국어 사전』

Ⅱ 논저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황선엽(2015),『한국어 문법 총론 1』, 집문당.

구본관·박재연·이선웅·이진호 (2016),『한국어 문법 총론 2』, 집문당.

김승곤(2018),『국어 조사 연구』, 글모아출판.

김진수(1987),『국어 접속조사와 어미 연구』, 탑출판사.

신서인(2017),『한국어 문형 연구』, 태학사.

이성하(1998),『문법화의 이해』, 한국문화사.

이태영(1988),『국어 동사의 문법화 연구』 , 한신문화사.

안주호(1997),『한국어 명사의 문법화 현상 연구』, 한국문화사.

이희자・이종희(1998),『텍스트 분석적 국어 조사의 연구』, 한국문화사.

허동진(2006),『한국어 조사의 뜻과 쓰임』, 한국학술정보.

황화상(2012),『국어 조사의 문법』, 지식과 교양.

王　力(1943),『中国现代语法』, 商务印书馆.

Ⅲ 논문

김경학(2004), 동사 Bake의 논리적 다의성과 어휘 의미구조, 어학연구 40(3), 573 - 595.

김문웅(1982), '-다가' 류의 문법적 범주, 한글 176, 149-178.

김윤신(2001), 파생동사의 어휘 의미 구조,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김윤신(2004), 활동(motion)·소비(consumption)·창조(creation) 동사의 사건 구조에 대한 연구, 인문논총 52, 125-157.
김형정(2009), 간접적 개체로서의 'NP에게', 한글 285, 97-130.
문병열(2018), 연결어미 상당 구성의 유형 분류 군집 분석을 중심으로, 어문학 139, 83-112.
박부자(2007), '대로'의 형성, 구결연구 24, 201-236.
박양규(1972), 국어 처격에 대한 연구, 국어연구 27, 서울대학교 국어연구회.
박용찬(2014ㄱ), 중세국어 '다가'와 '-어 다가'의 문법화, 한국어학 65, 175-209.
박용찬(2014ㄴ), 중세국어의 "다가"에 대한 고찰, 반교어문연구 38, 227-275.
박진호(1997), 借字表記 資料에 대한 통사론적 검토, 새국어생활 7-4, 117-145.
박진호·황선엽·이승희(2001), 어말 'CO-ㅣ'에서의 'CO-ㅡ' 탈락 현상에 대하여, 형태론 3-1, 231-239.
박진호(2007), 유형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어 대명사 체계의 특징, 국어학 50, 115-147
백낙천(1996), 다가에 대하여, 동국어문학 8, 213-230.
成洛秀(1976), "접속사 [다가]에 대하여", 연세어문학 7-8, 171-183.
손혜옥(2012), '가지다' 구성의 문법화에 대한 공시적 분석, 한국어학 55, 207-238.
장회견(2015), 명사에 후행하는 '조사+다가' 구성, 국어사연구 20, 397-426.
전후민(2014), {다가}의 변천사, 우리말글 63, 29-68.
정현이(2018), 영어권 학습자를 위한 조사 '-에다가'의 교육 방안 연구, 부경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정현이·권성미(2018), 조사 '에다가' 교육 방안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언어학 81, 103-126.
정해권(2012), 한국어 조사 '에게'의 인지의미론적 접근, 담화와 인지 19(2),

133-152.
양소열·구본관(2018), 한국어 다기능 문법형식 '에게'의 의미지도, 문법교육 33, 101-134.
예선희(2015), 우리말 '격조사+다가' 구문의 문법화, 현대문법연구 86, 31-46.
왕 단(2019), 한국어 보조사의 강조 기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유경화(2013), 조사 '에다가'의 통사・의미적 연구, 어문학 120, 31-54.
유경화(2014), 한국어 복합 격조사에 대하여, 어문학 124, 39-66.
유효영(2018), 한국어 접속부사와 접속어미의 관련성, 언어와 문화, 14(4), 221-242.
이규호(2006), 접속조사의 분류와 목록, 우리말글 37, 171-195.
이남순(1996), 「'다가'攷」, 『이기문 교수 정년퇴임 기념 논총』, 신구문화사, 455~477.
이 숙(2006): '다가'의 용법에 대하여, 한국어학 32, 213-239.
이현희(1995), '-사 '와 '-沙', 韓日語學論叢, 國語資料院.
이현희(2013), 어휘 차원에서의 '강조' 실현 방식과 그 특징, 한국학연구 46, 125-165
임동훈(2017), 한국어의 장소 표시 방법들, 국어학 82, 101-125.
임채훈(2002), 국어 복합사건 단문의 의미 연구-'NP1가 NP2를 NP3에다가 V' 구문을 중심으로, 高凰論集(31), 43-54.
임홍빈(2004), 국어 조사의 하위 부류와 결합 유형, 국어학 43, 119-154.
채숙희(2002), 연결어미 상당의 명사구 보문 구성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채희락(1999), 이동동사의 정의와 분류, 현대문법연구 15, 79-100.
채희락·임은숙(2013), 장소 표현 [NP-에]와 [NP-에서]의 분석: 보충어와 부가어 구별을 중심으로, 언어 38(4), 997-102.
최 련(2015), 한국어 강조 보조사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하위 논문.

최 윤(2016), 조사 '다가'의 문법적 위치 고찰- 형태적 출현 제약을 중심으로, 한말연구 42, 171-196.
한용운(2004), 助詞連續構成과 複合助詞, 어문연구 32(2), 145-169.
홍재성(1994), 한국어 이동동사구문 연구의 몇 가지 문제, 서울대 어학연구소 128회 월례 어학 세미나 (1994년 6월 15일) 발표 자료.

中文纲要

关于与助词相结合的补助词“다가”的研究

陈若仪

韩国语言文学系 韩国语言学专业

国立首尔大学 研究生院

本论文旨在探讨韩语中和助词相结合的补助词“다가”的语法及语义功能。与现有研究成果相比，本文主要采用了通时的研究方法，以语料为基础探讨了现代韩国语中和助词“에”“에게/한테”以及“로”结合的补助词“다가”的特点。

本文共由五章组成。逐一探讨了和“에”“에게/한테”以及“로”结合的补助词“다가”。各个章节首先探讨了和补助词结合后而形成的“에다가”“에게/한테다가”和“로다가”整体的语法及语义功能，然后又重点探讨了其中补助词“다가”所发挥的语义功能。

在第二章中笔者将助词“에”分为副词格助词和接续助词两类，分别进行分析。通过分析可知副词格助词“에다가”中的“다가”根据句子中谓语的语义的不同，共有“接近”和“添加”两种语义功能。而接续助词“에다가”中的“다가”只有“添加”这一个语义功能。除此之外，本章还探讨了助词“에다가”的延伸用法，并且比较了助词“에”和“에다가”之间存在的差异。

第三章主要探讨了与助词“에게/한테”相结合的“다가”的语义特征。通过比较“에게/한테”和“에게/한테다가”用法上的差异以及语料的分析可知这里的“다가”虽然依然保留着“添加”的意思，但最主要的语义功能是“强调”。而拥有“强调”功能的“다가”又可以根据其作用域再度分为强调“对象”和强调“接近”两种情况。

第四章与第三章的论述结构相似，论述对象则改为了“로다가”中的“다가”。在助词“로”的十种用法中，其中九种后面可以添加“다가”，由此可知这里的“다가”原本的语义功能已经极具弱化，只能起到“强调”的作用了。和“에게/한테다가”中

的“다가”一样，“로다가”中的“다가”的强调对象也可分为“로”“先行名词+로”以及话者的情感情态。

关键词 ：助词，补助词，补助词“다가”，语义功能，‘에다가’，‘에게/한테다가’，‘로다가’

学号 ：2019-20398